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February 4, 2016 Vol. 516

지카 바이러스

WHO, 국제비상사태 선포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지카 바이러스에 대응해 국제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WHO는 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 확산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마거릿 찰 WHO 사무총장은 "외부 전문가 18인의 긴급위원회는 최근 브라질에서 보고된 소두증과 그 밖의 신경장애 사례는 '이례적인 일'로 그 밖의 다른 지역 공중보건에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감염국가 내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인 신속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카 바이러스는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의해 전염된다.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소두증(小頭症) 신생아의 출산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임산부는 중남미 등 지카 바이러스 유행지역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밀려드는 난민... 지쳐가는 유럽

갈 곳없는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유럽으로 가기 위해 난민들이 몸부림 치고 있다. ©오픈도어선교회

처음 난민들을 환영했던 유럽의 국가들이 최근 독 퀘른에서 발생한 무슬림들의 집단 성폭행 등 무차별적 난민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겪으면서 점차 지쳐가고 있다.

독메르켈 총리는 전쟁이 끝나면 난민들은 돌아가야 한다고 했고, 오스트리아는 빨리 돌아가면 지원금을 더 주겠다고 했다. 난민 관문 국가들

은 자신들이 너무 힘들다면 하소연하고 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요르단 등 유럽으로 난민들이 건너가는 관문 국가들과 경유국, 수용국 등의 갈등 또한 커져만 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현재 유럽으로의 1차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스가 난민들을 내보내는 것에만 신경 쓰고 국경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

고 있기도 하다. 장클로드 웅커 EU 집행위원장은 마케도니아에 EU 경찰을 보내 그리스 인접 국경 경비 강화에 찬성했다.

요르단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다면, 자국으로 밀려오는 시리아 난민들을 감당 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들의 몸부림은 필사적이다. 이영인 기자

"교회음악 총신동문들의 선교사 사랑"

오지 선교사들 돋기 위해... 자비량으로 달려온 한마음

지난달 31일 선교사들을 돋기 위해 전 세계로부터 달려온 교회음악 총신동문들이 한인소망교회(담임 윤목 목사)에 모였다.

윤목 목사는 동문 후배인 바리톤 김정호(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 오페라극장 상임단원)와의 통화에서 코스타리카 선교사인 전영진, 홍수진 선교사를 돋기로 했다. 홍수진 선교사는 현재 항암치료 12차 중 10차를 무사히 마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선교사를 돋자는 취지를 접한 교회음악 총신동문들이 발벗

고 나섰다. 오스트리아와 한국 등 전 세계에서 자비량으로 달려왔다.

1부 오페라 아리아와 2부 찬양과 경배의 순서로 드려진 음악회는 청중들을 은혜와 감동으로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날 윤 목사는 시편 148편 1~2절 중심의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가 찬양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자리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 우리 안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병중에 있는 선교사님이 치유와 회복의 은



지난달 31일 한인소망교회에서 선교사 돋기 교회음악 총신동문들의 음악회가 열렸다.

혜가 임할 줄 믿는다"고 말했다. 이 날 드려진 현금과 한인소망교회에

서 준비한 선교헌금은 코스타리카의 전영진, 홍수진 선교사, 몽골의

허성근 선교사, C국의 최다니엘 선교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오페라단의 바리톤 김정호, 미시간주의 그랜드밸리 주립대학교 성악과 교수 테너 진철민, 한국에서 활동 중인 소프라노 박영미, 임미라, 소프라노 허성희, 피아니스트 조아라, 남현선 미주총신동문회장단, 한인소망교회 성가대 등이 선교사들을 돋기 위해 참여했다.

한인소망교회찬양대와 미주총신음악과 동문들이 함께 '은혜 아니면,' "여기에도 모인 우리' 등을 합창하는 가운데 음악회의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이인규 기자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아이비 유학

3·7·21 재능캠프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계발·토랜스, 얼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USA Tel:(951) 383-5583

Tel:(949) 329-8222

Email:shelby.moon65@gmail.com

www.MyIvydream.com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운다”

주강사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담임)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강사 강명옥 전도사, 박주성 목사, 김홍장 전도사

일시 2016년 4월 18일(월) - 4월 23일(토)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상 현 이민 교회 담임목사 및 부교역자

(담임목사 참가시 부교역자도 참석 가능)

등록서류 신청서, 주보, 사진 1매

등록마감 2016년 3월 21일(월)

등록비 \$390(숙식 및 강의안 포함)

등록처 국제제자훈련원(T. 714 635 3000)

dmmi@sarang.com



남가주사랑의교회

국제제자훈련원

T. 714 635 3000

“예배회복운동 나이스크 신임 임원 취임예배”

사무총장 김은목 목사 등 신임 임원 임명하고 취임식 가져

예배회복운동 나이스크(Nyskc) World Mission)의 사무총장에 김은목 목사(평화교회)가 임명됐다. 23년 째를 맞이한 나이스크 운동은 전 미주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로 급속히 확대돼 왔다. 동부 뉴욕에 최고선 대표회장, 서부 LA에 김은목 사무총장 체제가 잘 확립되면 전 미주 지역에 이 운동이 더욱 균형감 있게 확산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27일 평화교회에서 열린 임명 및 취임예배에서는 사무총장 김은목

목사 외에도 대외협력실장 박재준 목사, 교회교육성장연구소장 유은식 목사, 지도자훈련원장 최태영 목사 등이 임명받고 취임했다. 예배 설교는 뉴욕으로부터 최고선 대표회장이 직접 방문해 전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엡1:3-6)”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며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며 그 택함은 불가항력적이다. 오늘 임명 받는 분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 그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

라”고 강조했다.

이 행사에는 남가주교협 변영익 증경회장, 남가주목사회 염규서 회장, 나이스크 서부본부 최학량 자문위원 등 교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번에 취임한 김은목 사무총장은 “수년간 공석으로 있던 사무총장 직을 맡게 됐다. 최고선 대표회장을 도와 전 미주와 세계에 예배 회복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왼쪽으로부터)최태영 지도자훈련원장, 박재준 대외협력실장, 김은목 사무총장, 유은식 교회교육성장연구소장.



임마누엘장로교회와 갈보리믿음교회가 지난달 31일(주일) 연합예배를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의 교회”

임마누엘교회·갈보리믿음교회 연합예배 드려

미국교회와 한인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안의 한 공동체임을 확인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임마누엘장로교회와 이 교회를 벌려 사용하는 갈보리믿음교회는 지난 1월 31일 주일예배를 연합해 드렸다.

이 두 교회는 확연히 다른 교회라고 볼 수 있다. 임마누엘교회는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해 있지만, 한인 이민이 시작되기 훨씬 전인

1888년 설립된 교회다. 현재는 영어권 회중과 스페니시권 회중이 공존하고 있다. 갈보리믿음교회는 한인 1세들이 2004년 설립한 전형적인 한인교회로 2009년 11월부터 임마누엘교회를 벌려 사용하다 2012년 4월, 또 다른 한인교회인 라브레이커뮤니티교회와 합병해 오늘에 이르렀다.

또 서로 공통점도 있다. 일단 두 교회 모두 장로교회다. 임마누엘교회는 미국장로교(PCUSA) 소속이며

갈보리믿음교회는 미국장로교와 선교적 인연이 깊은 해외한인장로회(KPCA) 소속이다. 그러나 가장 큰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몸이란 점이다.

두 교회는 1년에 수 차례 연합예배를 드리며 미국인과 한국인, 건물을 벌려주는 교회와 벌려쓰는 교회라는 세상적인 장벽을 넘고 있다. 이번 연합예배는 3개 국어로 진행되었으며 설교는 갈보리믿음교회의 강진웅 담임목사가 전했다.

강 목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계7:9-12)’란 설교에서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강조했다. 강 목사는 “초대교회는 민족과 언어, 남녀와 신분, 지역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이 장벽과 갈등을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했다”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처럼 다양성과 통일성을 띤다”고 전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3개 언어권 회중들이 인사하고 악수하며 가장 가까이 앉은 이들에게 찾아가 자신을 소개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는 한국의 대표적 노래인 아리랑 오르간 연주를 통해서로 은혜를 나눴다.

김준형 기자



가장 어린 유아로부터 청년회장, 남녀선교회장, 교역자가 대표로 나와 기념 케이크를 커팅하고 있다. (정중양) 담임 강양규 목사.

“남가주새언약교회, 창립5주년 기념예배”

2020비전선언문 낭독…차세대 준비와 선교 중심교회 될 터

남가주 새언약교회(담임 강양규 목사) 창립 5주년 기념예배가 31일 이 교회 본당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려졌다.

예배는 지난 5년 동안 남가주새언약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됐다.

강양규 담임 목사는 ‘믿음으로 살라’(행28:16-31) 주제의 설교를 통

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주어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서는 7개의 2020 비전선언문을 전교인들이 함께 낭독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교회에 대한 문의는 213-434-1083으로 하면 된다. 참조 웹사이트는 www.new2011.org, 주소는 3407W. 6th St., LA, CA 90020.



LA다운타운 홈리스들을 섬기는 벽없는교회.

LA 다운타운 홈리스들이 밀집한 곳에 위치한 벽없는교회(Church without walls). 홈리스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는 데에는 말 그대로 아무런 장벽이 없다. 건물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길거리 위에 있는 교회이

기애 때문이다.

이 교회는 흑인인 큐 진 마리 목사가 10년 전 시작했다. 교인은 20여 명인데 그 중에 10명은 홈리스이고 나머지는 이 홈리스들을 섬기기 위해 모인 성도들이다. 주윤경 씨 등 한인

“벽없는교회”

LA다운타운 홈리스 섬김

성도도 대여섯 명 있다. 이들은 매주 예배 후 150여 명의 홈리스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찬양과 기도, 교제를 통해 복음을 전한다. 주 씨는 “예배 중 마약과 술에 취한 사람들이 난동을 부려 예배가 중단되기도” 한다며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더욱 더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주 씨는 “현재 누구나 쉽게 찾아와 기도할 수 있는, 24시간 열린 공간 마련을 위해 기도 중”이라고 했다. 후원 문의는 지윤숙 권사(714-726-6204)에게 하면 된다.

문소현 기자

ANC온누리교회 유진소 담임목사 사임

부산 호산나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받아



유진소 목사.

ANC온누리교회 유진소 담임목사가 지난해 27일 임시당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부산의 초대형 교회인 호산나교회의 담임 후보로 선정됐음을 밝히고 사임의 뜻을 전했다.

이 교회 당회원들은 유 목사의 결

정을 신뢰하고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ANC온누리교회에 미칠 유 목사의 사임 파장은 미미할 듯 하다. 이 교회 성도들은 유 목사의 사임 소식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동요없이 주일 예배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장합신 교단 소속인 부산 호산나교회는 최홍준 목사가 65세에 조기 은퇴하며 40대의 흥민기 목사가 후임으로 청빙됐으나, 그는 개인 사정으로 4년여 만인 지난해 중반에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인 기자

결혼을 생각하는 커플, 부모, 목회자를 위한 결혼프로젝트 X 토크포럼 2016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하나됨 만이 아닙니다. 두 가족의 하나됨입니다.

올바른 결혼관, 의미있는 결혼식, 그리고 성경적인 가족관을 편안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결혼토크포럼을 개최합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 결혼나이의 자녀를 둔 부모, 그리고 가정사역에 관심이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초대합니다.

참석 예약은 페이스북 메세지(www.facebook.com/familydreamproject)나 전화 323.934.005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자리준비를 위해서 RSVP를 해주세요)



웨딩 전문 MC
테리 송



“사랑의 선교사”
유영택 목사



“웨딩 트렌드 선구자”
에스터 김



웨딩 리문화사역자
조나단 리 목사

일시 2016년 2월 14일(일) 3:00~5:00pm

장소 Hana Christian Center



1135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el.323.934.0058

“통큰통독의 배 타고 은혜의 바다로”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2월부터 3개 프로그램 실시
성경일독학교 통독새벽기도 예수생애탐구 등 다채

에스라 성경통독사역원(상임대표 주해홍 목사)은 영적으로 성공하는 2016년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3가지 행사를 애나하임 강의실에서 마련한다.

모두 ANC온누리교회 사역목사이자 미주장로회신학교 통독교수인 주해홍 목사가 직접 강사를 맡아 참석자들로 하여금 송이꽃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한다.

첫 테입을 끊는 행사는 미주두란노 세미나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5

기 성경일독학교'. 2월 11일부터 16주간 매주 목요일에 강의가 진행된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오전반(오전 10시-오후 12시20분)과 오후반(오후 7시-9시30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강의는 살아 있는 다이내믹한 신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구별된 삶이 라는 3가지 관점에서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면서 통전적, 연대기적으로 읽게 해 마친 후에는 흘러져 자란 자신의 신앙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특징. 회비는 100달러이며, 교재 '통큰통독 성경'(두란노 간)은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두 번째 행사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라는 시편 119편 148절 말씀을 불자고 살려는 이들을 위한 '90일 성경통독 새벽기도회'다. 2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일(주일 제외) 열리며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5시30분~6시30분, 토요일 오전 6~7시.

보통 15~20분의 강의에 이어 40~45분간 하루치의 본문을 전문 성우들의 낭독을 들으면서 읽는 방식으로 참여한 뒤 각자 형편에 따라 개인 말씀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역시 통큰통독 성경을 사용해 성경 전체를 사건 발생 흐름에 따라 일독하며,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유익이 있다. 간단한 묵상용 교안을 제공하지만, 회비는 없다.

세 번째 행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예수 생애 탐구'다.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참석자들은 제1부에서 시작해 제4부를 마치기까지 각 파트별로 12주씩, 총 48주 동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흥미진진한 탐구 여행을 하게 된다.

강의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까지이며, 첫 강의는 2월 13일 시작된다. 회비는 각 파트별로 50달러이며, 교재는 강의시간에 배부한다.

주해홍 상임대표는 "많은 교인들이 이번 기회를 활용해 성경을 깨뚫어 보는 통전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복음서를 중심으로 철두철미하게 이뤄지는 예수 생애 탐구 강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관계회복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주 정부 감사관 출신으로 오랫동안 성가대 지휘자로 사역하기도 했던 주 목사는 약 20년간 성경공부를 인도하며 준비한 끝에 '통큰통독'을 저술, 한인교회 및 한국교회의 신자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돋는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50여 차례의 단기 및 집중강의, 10여 차례의 16주 전체과정 강의를 한 바 있는 그는 OC교협이 3월 7~9일 온예한인교회에서 목사, 사모들을 위해 주최하는 성경통독 집중강의에 강사로 나선다. 또 4월 중순 볼티모어 베델교회에서 5일간 통독 세미나를 가진 뒤 6월에는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에서 곧 출판될 스페니시판 통큰통독으로 현지인 말씀훈련을 5일간 실시하고 한국 주요 도시 순회집회를 떠날 예정이다.

에스라 성경통독사역원의 주소는 1661 N.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웰스파고 빌딩 2층)이며, 문의는 714-726-8887 박용일 목사에게 하면 된다.

홈페이지 www.ezrabiblereading.com을 방문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장섭 전문위원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장남 앤런, 약혼자 태미, 강 전 시장, 부인 강원희씨, 차녀 앤지, 사위 로렌스.

“한인신자들, 美선거 적극 참여해야”

강석희 전 시장, 주상원 민주당 공식후보
교회들 방문 지지 호소-유권자등록 부탁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겸증 받은 능력을 바탕으로 대의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도와 달라고 호소한 것이 주효한 것 같습니다.”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오렌지가나인장로 교회 집사)이 캘리포니아 주상원의원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제29지구에서 출마를 선언한 강 전 시장은 지난달 30일 오렌지시 소재 오렌지카운티 당사에서 개최된 가주 민주당의 '공식 후보 선출대회'(pre-endorsement conference)에서 지구 대의원 표의 90%를 획득, 9%에 그친 경쟁자 조시 뉴먼 후보에 압승했다. 3월 후보 등록을 앞둔 강 전 시장은 오는 26~28일 산호세에서 열리는 가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의 후보지명을 받게되며 예비경선에서 70% 이상 득표하면 공식지지를 받게 된다.

강 전 시장은 앞으로 당의 지지하에 보다 효과적인 선거자금 모금과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비스트, 이의단체 등 의 지지와 정치자금 역시 민주당이 소속 유권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한 표를 부탁하는 공식 후보에게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의 지지 없이도 오는 6월 7일 열리는 예선(프라이머리)에 출마할 수는 있으나 캠페인에서 불리하다. 강 전 시장은 "민주당의 유일한 후보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고 제29지구에서 저만 당의 공식 지지를 받게 되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발로 뛰는 캠페인으로 주의회에 입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예선은 오픈 프라이머리로, 유권자들은 당적과 관계없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 최상위 득표자 2명이 11월 8일 열리는 본선에 진출, 진검승부를 벌인다.

주의회의 의원 정수는 상원이 40명, 하원

이 80명이다. 상원은 4년 임기 3회, 하원은 2년 임기 6회로 임기 제한이 있다. 어바인 시의원과 직선 시장을 두 차례씩 지낸 강 전 시장이 이번에 나서는 지역도 공화당 현역이 임기 제한에 막혀 출마하지 못하는 지역이다. 공화당에서는 초선 주하원의원인 타이완 계 링링 챠를 내세워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주상원 제29지구는 오렌지(라팔마, 사이프러스, 풀라튼, 브래아, 라하브라, 플라센티아, 요바린다, 스탠튼, 애나하임의 58%, 부에나파(일부), LA(다이아몬드바, 로랜하이츠, 월넛, 웨스트코비나 일부), 샌버나디노(치노힐스 일부) 등 3개 카운티를 포함하는 선거구로 유권자의 약 74%가 OC에 집중돼 있다. 인구구성은 라티노 37%, 백인 31%, 아시안 27% 등으로 소수계가 다수. 총 등록 유권자는 43만명 중 아시안은 약 9만으로, 한인 6,000여 명, 중국인 2만 4,500여 명, 필리핀인 1만 6,500여 명, 베트남인 1만 5,000여 명 등이다. 당적은 공화당 37%, 민주당 34%, 무당과 25% 등으로 투표율이 높은 지역을 저인 망식으로 민심을 공략할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 강 전 시장의 판단이다.

"수개월 전부터 한인교회들을 방문해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는 그는 "가능한 한 많은 교회들을 찾아가려고 한다"며 "한인사회에 가장 큰 보팅 블럭(voting block)이 교회다. 단결한다면 누구라도 당선시킬 수 있는 큰 힘이 한인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회들이 꾸준히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권장한다면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며 "한인 정치인 배출은 커뮤니티의 권익을 옹호하고 한인 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등 여러 혜택을 끌어내는 데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문의는 www.kangforsenate.com.

김장섭 전문위원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 빛 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수술없는 한방 성형
차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이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설리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 성경통독 사역원 1기 안내

당신의 마지막 카드

90일 성경통독 새벽기도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 119:147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 119:28

아침 5시 30분부터 6시 30분 까지 60분동안 15~20분 강의와 40~45분간 일일 분량의 본문을 전문 성우들의 낭독을 들으며 읽습니다. 그 후 각자 시간에 따라 개인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됨을 체험하십시오.

▶ 일시 : 2016년 2월 13일~5월 14일 월 - 금 아침 5시 30분~6시 30분 토요일 아침 6시~7시 *주일은 없음

참가비 없음

예수 생애 탐구

너는 나를 누구라- 누느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Fix your thoughts on Jesus)” 히 3:1

4복음서를 예수님 생애별로 재 배열하여 예수님을 깊게 공부합니다.
4부로 나누고 각 부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2시간씩 12주간 진행합니다.

▶ 일시 : 2016년 2월 13일~4월 30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참가비 각부 50불

제 5기 OC 성경 일독 학교 16주 과정

2016년도 통크게 통독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경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훨씬 조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 4:12,13

▶ 일시 : 2016년 2월 11일 매주 목요일 오전반 10시~12시 20분 오후반 7시~9시 30분

참가비 100불 교재비 별도

박용일 목사 714-726-8887

www.ezrabiblereading.com

“작아서 아름답다”

두 번째 열린 삼삼오오 찬양예배

지난달 31일 작은교회의 연합찬양예배 ‘삼삼오오 찬양예배’가 두 번째로 새창조교회(담임 김관중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찬양 예배에는 멀리 샌버나디노로부터 찾아온 성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함께했다.

광풍과 폭우가 몰아친 기상악화로 전기까지 끊기자, 주최측은 싈불을 켜고 찬양예배를 준비했다. 악기와 음향도 설정해야 했지만 단전여파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새창조교회 찬양팀의 인도로 시종일관은 혜로운 찬양이 이어졌다. 구원 받은 백성들은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모습 그 자체였다. 그렇게 예배는 시작됐고, 마원철 목사(리페어서번트 대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빌 2:3) 주제의 말씀선포를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낫고 천한 인간의 말 구유



두 번째 ‘삼삼오오 찬양예배’가 지난달 31일 새창조교회에서 열렸다.

에 오셨다”며 “그 한가지를 기억한다면 가난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행이도 2부가 시작되자 끊겼던 전기도 다시 들어오고 성도들도 보다 더 큰 기쁨으로 화답했다. 2부는 ‘8090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감동과 은혜 가운데 진행됐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작다하지 않으시고 또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신다. 이날 드려진 찬양예배는 세상에 서 드려진 그 어떤 찬양예배보다도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였다.

1부 예배는 허번 목사(새로워지는 교회 담임) 기도, 박세현 목사(예수로교회 담임) 환영사, 이경호 목사(영생장로교회 담임) 색소폰 연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김관중 목사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한편, 세 번째 ‘삼삼오오 찬양예배’는 오는 5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문의는 323-934-0058다.

이인규 기자

“행복나눔 전도축제”

장경동 목사 초청…アルバ인아름다운교회에서

행복나눔 전도축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アルバ인아름다운교회(담임 이동준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는 대전증문교회 장경동 목사와 권능교회 김호민 목사, 문막드림교회 장순직 목사가 참여했다.

문소현 기자

“美이민생활 40년”

정지윤 목사 출판 감사예배 열려

정지윤 목사 美이민생활 40년을 고스란히 담아낸 ‘정지윤의 발자취 미국 이민생활 40년’ 출판 감사예배가 지난달 30일 성서장로교회(담임 김병용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정목사는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고문 김문희로부터 축하패를 증정받았다.

나무엔 쉼 미니콘서트

한국 CCM 사역자인 ‘나무엔’ LA 방문 미니 콘서트가 열린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2월 11일(목) 오후 7시
(하나크리스천 센터)
- * 12일(금) 오후 7시 30분
(또감사선교교회)
- * 13일(토) 오후 6시
(COF 부모모임, 다이아몬드바)
- * 14일(주일) 오전 11시
(인랜드온누리교회 특송)
- * 14일(주일) 오후 2시
(LA비전교회)
- * 문의: 323-934-0058

3. 쉐펠라

쉐펠라(Shephelah)의 어원은 ‘낮은 땅’으로 블레셋 평야와 유다 산지 사이의 구릉지대를 말한다. 산지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에게 이곳은 블레셋인에 대한 최전방 방어선이었기 때문에 항상 피가 흐르는 전쟁터였다고 전해 내려온다. 천혜의 요새 맛사다는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상징이었다. 73년 로마군의 공격에 맞선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마지막 결전을 벌이다 최후를 맞이하였다. 뛰어난 건축가이기도 한 해롯 왕이 지었다고 전해진다. <계속>

문의: 엘에이 본사 (213)736-1212

김상준 매니저 (213)201-5369

무료전화: 1-877-464-6121

FAX: (213)736-1221, (646)349-3971

웹사이트: www.usahanatour.com

주소: 3053 WEST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매니저 김상준.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종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장 : 로스엔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기독일보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교회



신승훈 담임목사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749-4500 / F.(213)749-6700

“기독일보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동양선교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만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요엘 2:28~29)

1부 아침 예배 오전 8:00~9:00
2부 전통 예배 오전 9:30~10:30
3부 열린 예배 오전 11:00~12:00
4부 영어 예배 오후 12:45~1:30
5부 청년 예배 오후 1:30~2:45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박형은 담임목사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466-1234
Email: omoffice1@gmail.com

성령에 이끌리는 공동체

열왕기하 6: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열왕기하 6:1-6

1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2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재목을 죄하여 그 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3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4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5 한 사람이나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어온 것이다 6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 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본문의 내용은 BC 847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면서 미신과 우상을 섬겨 사회가 여려 모양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음의 증인들을 세워 타락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 선지 학교 건립

그 당시 선지 학교라는 것이 성경의 소개대로 보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길갈, 벤엘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이 인접한 도시로 여리고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지자를 가르치고 훈련시켜 성령과 진리로 무장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려 하였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선지 후보생 생도가 필요했고, 또 하나님께서 직간접으로 역사해서 사방에서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하여 이 선지 학교로 모여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도,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Christian Preschool 원장 초빙

2016학기 Christian Preschool 자체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을 초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돌보며 Preschool 운영에 열정을 가지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격: 원장 Director License 소지자
State Policy 규정에 의해
Preschool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유경험자
한국어 / 영어 Bilingual 필수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서, 자기소개서

제출처: 선한목자교회
우편접수: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이메일접수: info@sunhanchurch.com

문의: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 김인수 교수의 한국교회사

백만 명 구령운동(救靈運動)



김 인 수 교수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1907년 대부흥의 물결이 2, 3년 지나 부흥의 열기가 차차 식기 시작했다. 교인들의 열성이 기울기 시작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일제가 기왕에 시작한 한국 식민화를 가속했다. 급기야 일제는 1910년 8월 한국을 강점 병탄하여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과 모든 사람의 좌절을 보면서, 교회는 이런 때 낙담하고 있는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일깨웠다. 이에 따라 부흥운동이 재개됐는데 이 운동이 '백만명구령운동'(The Million Souls for Christ)이다.

이 운동은 1909년 개성에서 감리교 선교사 스톡스(M.B.Stokes), 캠불(F.K.Gamble), 리드(Miss W.T.Reid) 3인 회동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한국 교회에 다시 부흥의 불길을 당기기 위해 사경회와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갖기로 협의했다. 이들은 한국 교인 몇 사람과 함께 산상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에 참석했던 선교사들은 1909년 9월에 개최한 남감리교회 연차대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20만 명의 심령을 그리스도에게"라는 표어로 특별 집회를 열 것을 요청했다. 연차대회가 폐회된 후 바로 열렸던 복음주의선교연합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the Evangelical Missions)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 공의회에 참석한 위 세 선교사는 공의회 전도 목표 채택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백만 명 심령을 그리스도에게"였다. 여기서 백만 명 구령운동이 정식으로 출범한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불과 몇 만 정도에 불과했던 때 백만 명은 확실히 실현하기 어려운 숫자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전 국민을 상대로 전도운동을 벌이기 위해 그런 목표를 정하고 추진했다.

이때 마침 세계를 순회하며 전도 강연을 하던 부흥사였던 캠맨(Wilbur Chapman)과 알렉산더(Charles M.Alexander) 일행이 내한했다. 이들은 즉시 백만 명 구령운동에 동참키로 하고, 먼저 선교사들을 상대로 전도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떠났으나 일행 중 한 사람인 데이비스(George T.Davis)는 한국에 남아 전국을 순회하며 전도집회를 계속했다. 일제로

미션 필드」(The Korea Mission Field)에 다음과 같은 글이 게재됐다. "고되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한국 사람들은 도급 10만 날을 이 사업에 바쳤는데 지난겨울에 개인전도에 사용한 일수는 7만 6천 날이고, 금년 가을에도 수백 명의 한인 전도인들이 가호호를 심방하는 활동과, 대 집회에 출석한 구도(求道)인들과의 개인적 접촉을 위해 한 달을 온통 바쳤다. 수백 만 매의 전도지와 한인 신자들이 대금을 내고 불신 동포에게 70만 원의 마가복음을 무료로 배부하면서 복음서를 읽고 믿으라는 간곡한 권고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한국인 가정 치고 심방 받지 아니한 가정이 거의 없었고 심방의 결과를 얻기 위해 수천 명의 한국인이 매일 기도를 올리고 있다."

위의 글은 당시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며, 시간과 물질을 바쳤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연말에 그 결과를 정리했을 때 결신자 통계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알게 됐다.

물론 백만 명이 다 예수를 믿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 결과는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평양에서 사역하던 북장로교회 베어드(William Baird) 선교사는 "온 교회가 굳센 믿음과 유례 없는 열성으로 이 운동에 가담했다. 복음을 이처럼 전국적으로 전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권유를 받았고, 또한 신자가 될 뜻을 표시하기도 했다. 나 개인적으로는 모든 일이 다 알려지게 되면 백만 명 이상의 영혼이 이번 백만 명 신자화 운동이 있던 기간에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리라고 믿는다."고 고백했다.

그의 말과 같이 백만 명이 결신은 하지 못했다 해도, 백만 명이 복음을 소식을 들었다면, 언젠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전도를 계속 해야 될 것을 확신했다. 백만 명 구령운동은 민족 복음화의 첫 걸음이었고, 이 정신은 후대에도 계속 그 맥을 이어오게 된다.

하나님의 설계하신 생물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하늘을 나는 새는 놀라운 공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벼운 무게를 위하여 빼는 비어 있다. 바람을 가르고 날기 위하여 온몸이 가벼운 깃털로 덮여 있다. 몸 안에는 공기 주머니가 있어 무게를 줄이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몸이 젖지 않도록 기름이 몸에서 나온다. 머나먼 길을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철새도 있는데, 경이로울 정도의 먼 거리를 비행한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새들 중에서 신기한 새 중의 하나는 딱따구리다. 딱따구리는 1초에 10번 이상 나무를 쪼아대는데, 그 부리가 쪼개지지 않고, 그 눈이 튀어나오지 않는다.

두개골과 뇌에는 스폰지와 같은 완충 부분이 있어서 머리를 보호하고, 나무를 찍기 직전 1000분의 1초 전에 눈을 감아 눈이 튀어나오지 않게 방지한다.

네 발톱으로 나무를 굳게 잡고 나무를 파기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신기한 것은 긴 허다. 벌레를 잡아먹는 끈적끈적한 허는 너무 길어서 부리 안에 저장할 수가 없다. 딱따구리는 긴 허를 두개골의 양옆을 돌아서 오른쪽 코에 박혀있다.

의 지적인 설계가 처음부터 딱따구리를 딱따구리로 만든 것이다. 이것에 오류가 있으면, 제대로 된 딱따구리가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유전자는 정확히 부모의 것을 복제하게 되었다. 염색체가 줄거나 늘거나 하지 않고 창조된 아래로 동일한 염색체를 유지하고 있다.

하늘을 나는 경이로운 생물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부리와 혀와 나무를 찍는 근육과 날카로운 발톱을 주셨다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많고 크시겠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정교하게 설계되었고, 그 설계하신 분의 능력은 크고도 놀랍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이때를 위함이다.

세들을 이처럼 정교하게 창조하신 분은 우리도 정교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최고의 공학자다. 하나님은 최고의 디자이너다. 식물과 동물, 즉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시며, 심마을을 가지셨다.

정교한 수학과 생물학과 미학적 기술은 놀라울 뿐이며, 이는 우리의 탄성과 즐거움과 놀라움과 경외함과 찬송을 불러 일으킨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이 온 생물을 지으셨다.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새들 중에서 신기한 새 중의 하나는 딱따구리다. 딱따구리는 1초에 10번 이상 나무를 쪼아대는데, 그 부리가 쪼개지지 않고, 그 눈이 튀어나오지 않는다.

두개골과 뇌에는 스폰지와 같은 완충 부분이 있어서 머리를 보호하고, 나무를 찍기 직전 1000분의 1초 전에 눈을 감아 눈이 튀어나오지 않게 방지한다.

네 발톱으로 나무를 굳게 잡고 나무를 파기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신기한 것은 긴 허다. 벌레를 잡아먹는 끈적끈적한 허는 너무 길어서 부리 안에 저장할 수가 없다. 딱따구리는 긴 허를 두개골의 양옆을 돌아서 오른쪽 코에 박혀있다.

혀는 오른쪽 코에서 나와 두뇌를 돌아서 구멍으로 부리 속에 들어온다. 그리고 밖으로 길게 내밀어 곤충을 잡아먹는다.

이 공학적인 조류를 설계하신 분이 있을까? 이 경이로운 구조를 만드신 분이 설계도도 마련하셨을까? 물론이다.

하나님은 고도의 설계도를 딱따구리의 몸속 세포의 핵에 유전자로 만드셨다. 1,000페이지의 책 1,000권에 해당하는 많은 정보들이 아미노산의 배열을 통하여 생긴 DNA의 형태로 핵에 내재하고 있어서 그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딱따구리가 만들어진다. 딱따구리의 새끼는 정확하게 부모를 닮고 다시 알에서 깨어나온다.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설계도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고도

정교한 수학과 생물학과 미학적 기술은 놀라울 뿐이며, 이는 우리의 탄성과 즐거움과 놀라움과 경외함과 찬송을 불러 일으킨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이 온 생물을 지으셨다.



낮은 자존감 짙은 **열등의식**으로 시골 30명 목회가 꿈이었던 이영환목사의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목회의 원동력인 핵심 말씀을 정리한

평신도 말씀훈련 교재 「**예수님의 기도학교**」
20개월만에 7,100여명의 목회자님들과 해외 26개국 선교사님들을 만족케한 견증된 세미나

주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님들!

지난 1년 8개월동안 한국교회 1천여교회 7,100여명의 목회자님들과 26개국의 선교사님들께서 “장자권” 전국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이 펼쳐 가실 목회현장이 **오직말씀, 오직기도, 쉽고가볍고 재밌는 행복복화,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돋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기도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해는 “**기도목회**”가 해답입니다. “**말씀과 기도**” 목회만이 본질인데 2016년 새로운 목회를 기도로 준비하시는 이 때에 “기도편 목회자세미나”를 통하여 섬기시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불처럼 뜨거워지고, 목회자의 영성을 순수하게 처음사랑으로 뜨겁게 유지시키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평안한 목회의 복을 누리고 금번 기도세미나 말씀훈련교재를 통해 “뜨거운 기도와 강력한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강사 이영환 목사

- 한밭제일교회 담임
-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밌는”라고 외치는 목회자
-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의 권리 누리기”의 저자

기도편 목 차

제 1과 기도,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따라하라!
제 2과 기도, 반드시 초대교회를 배우고 따라하라!
제 3과 기도,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오래하는 습관을 가지라!
제 4과 기도, 할 수 있는 대로 크게 부르짖으라!
제 5과 기도, 할 수 있는 대로 깊고 은밀하게 하라!
제 6과 기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라!
제 7과 기도,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하라!
제 8과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 9과 기도,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다!
제 10과 기도, 영적 전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제 11과 기도, 하늘나라에서 VIP로 취급됨을 주목하라!
제 12과 기도, 믿음의 절대 파워다!
제 13과 기도, 모든 문제의 완전 해답이다!
제 14과 기도, 인생 역전의 지름길이다!
제 15과 기도, 사랑의 대화임을 잊지 말라!
제 16과 기도, 사명 승리의 유일한 길이다!
제 17과 기도, 반드시 먼저 회개를 동반하라!
제 18과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라!
제 19과 기도, 야곱처럼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라!
제 20과 기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라!

「**평신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자녀의 권리 누리기**」 2016 미주목회자 “기도편” 장자권 세미나 일정안내

일 시 : 2016년 2월 29일 (월) - 3월 2일 (수)

• 구체적인 일정은 홈페이지에 일정표를 확인해주세요.

강 사 : 이영환 목사 (한밭제일교회 담임)

장 소 : UBM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등록비 : \$ 100.00

• 주교재와 세미나 기간동안의 식사는 등록비에 포함되어 함께 제공됩니다.

• 목회자 부부로 등록하실 경우, 등록비는 동일합니다. (목회자부부 2인 : \$ 100.00)

[등록방법] 인터넷 : UBMCHURCH.COM

전 화 : 714-634-8360

문 의 : 714-634-8360 / 714-331-1755

714-501-1337

이메일 : USA.SONSHIP@GMAIL.COM

주 쇠 : 미주 장자권 세미나본부

협 찰 : PIXELL GRAPHICS / JP Toner & Ink Service

남가주사랑의교회 국제제자훈련원은 오는 4월18(월)~23일(토) '국제 23기 제자훈련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와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노창수 목사가 주강사를 맡는 이 배움의 장은 이민교회 담임목사 및 교역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 교회는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제자들을 키우시고 승천하시기 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극히 높은 명령을 주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지난 1988년 탄생한 이래

제자훈련에 올인해 오면서 최대 이민교회 중 하나로 성장했다. 최근 수년 새 제자훈련(2년 과정)을 몸과 삶으로 경험한 이 교회 집사 6명과의 좌담회를 통해 제자훈련의 본 모습을 알 아본다. 지금까지 수많은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불타는 마음을 갖게 하고 부 흥의 DNA를 심어준 제자훈련지도자 세미나에 대한 문의는 dmm@sarang.com, (714)635-3000으로 하면 된다. 등록비는 숙식 및 교재 포함 390달러이며, 마감은 3월 21일이다.

“예수의 온전한 제자 키우는 것이 교회 사명”

■ 남가주사랑의교회 제자훈련 졸업생 좌담회

■ 본인의 신앙적 배경, 제자훈련 받기 전의 영적 상태, 받게 된 동기를 설명한다.

▲ 최원배: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내비게 이토선교회 핵심 멤버로부터 이미 양육받은 상태에서 이 교회에 왔다. 예배의 은혜에 많은 눈물을 흘리다 차근차근 모든 배움의 과정을 밟으려는 의도로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 이치호: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출신으로 교회에서 성장했으나 이민 온 후 출석한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옮기게 되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예배 찬양이 너무 좋아 그동안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다. 타의로 교인등록을 했는데 '훈련 안 받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을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훈련에 돌입했다. 자격 미달이었으나 인원이 모자라 턱걸이로 입학했다.(웃음)

▲ 오다니엘: 중가주에서 남가주로 이사온 뒤 영적 침체를 겪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도 많이 읽었기에 모든 게 익숙하고 교회마다 그 나물에 그 밤처럼 느껴졌다. 이곳에 와서도 처음에는 제자훈련에 생각이 없었으나 아내의 권유로 참여하게 됐다.

▲ 이재일: 서부에서 동부로 이사온 뒤 이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았다. 훈련을 통해 세상이 아닌, 성경이 나의 텍스트복임을 알게 되었고 땅끝까지 가서 세상을 섬겨야 함을 배웠다. 제자반을 마치고 전체 훈련생이 가족과 함께 3박4일 멕시코 선교를 갔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훈련 후 고등실업자가 되지 말라'던 리더의 말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 장기준: 한학자 아버지 아래서 태어났다. 군대에서 만난 친구 권유로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다 싸우는 모습만 보고 안 나가게 되었다. 이민 와서 몇 군데 교회에 출석했다. 그러나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이 교회에 온 뒤 등록 하려면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먼저 한 아내를 따라 나도 시작했다. 나이가 많아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다. 화장실 청소 등의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했다.

▲ 유승현: 이민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새일꾼이라는 제자훈련 전 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억지로 끌려가는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다.

-훈련받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 장기준: 모두가 바쁜 이민생활 아닌가. 맞벌이 하면서 제자훈련에 임하는 일이 무척 힘들었으나 동기 훈련생들이 늦둥이 자녀 라이드도 해 주는 등 도와주어서 극복할 수 있었다. 성경암송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하니까 되더라.

▲ 유승현: 주일에 모이는 제자반에서 배웠는데 리더가 QT를 목숨처럼 여기는 분이셨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은 집사들은 한결같이 "제자훈련을 강추하고 싶다"고 말한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최원배, 이치호, 오다니엘, 이재일, 장기준, 유승현 집사.

다. 당시 출근하려면 새벽 4시50분에는 기상 해야 했는데 매일 새벽QT를 하기가 힘들었다. 덜 바쁜 시간에 QT하면 안 되느냐고 리더에게 물었는데 그럼 새벽 3시50분에 일어나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 다음날부터 3시반에 기상했다. 자신과의 싸움이 힘겨웠지만 결국 QT를 통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고, 그 훈련이 쌓여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다.

▲ 최원배: 강력한 리더를 만나 시간폭탄을 맞았다. 1주일간의 교회 차원의 훈련생 새벽기도가 끝나니 리더가 40일 새벽기도를 하자고 한다. 그것도 일반인들이 오는 새벽 5시 20분이 아니라 4시30분에 와서. 3시50분에는 침대에서 빠져나와야 했다. 교회 전체의 새벽기도가 끝나고도 훈련생만의 후집회를 40분씩 했다. 그러나 보니 병원에서 환자의 말이 접수가 안 되고 운전하다 출기 일쑤였다. 40일 새벽기도 후에는 교회 전체 특별새벽부흥회가 이어졌고 그 다음엔 우리 제자반의 연말새벽기도, 신년새벽기도가 시작됐다. 토요일에 종일 중보기도학교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같은 훈련을 받고나자 나의 기도가 변했다. 기도하니까 기도할 것이 더 많아지더라.

▲ 이치호: 일주일에 2개의 QT를 훈련생 웹사이트에 올려야 하는 일이 처음에는 고역이었다. 타자를 칠 줄 몰라 처음에는 무려 6시간이 걸렸다. 나중에는 3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어서 살 만했다. 50년 이상 신앙생활한 사람에게 리더가 목청껏 성경본문을 읽으라고

하는 것도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바로 훈련생이 가져야 할 태도임을 알게 되었다.

-제자훈련으로 인해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 유승현: 영적 생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적으로 성경에 접근했던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야 한다는 열망이 내 안의 옛사람과 둘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도 큰 소득이다.

▲ 장기준: 이단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자신감이 생겼다. 현재 사업을 하는데 벤더에게 교회 출석을 권유하고 갑질을 하지 않게 되었다. 푸드코트 같은 곳에서 식사를 할 때도 전과는 달리 꼭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며, 아내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동료 훈련생의 아내들이 모여 남편의 변화를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서로의 파수꾼이 되어 주는 좋은 시간이었다.

▲ 최원배: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대학시절 양육을 받을 때 '영적 재생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으나 실천이 힘들었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하며 발버둥치는 동안 해답을 찾았다. 남가주사랑의교회가 왜 남가주사랑의교회 되었는지도 알게 되었다. 없었던 인생의 블루프린트 또한 갖게 됐다.

▲ 이치호: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계속 밖으로 나돌고 세상에만 관심을 두던 나에게 아내도 별 기대를 안했다. 하지만 훈련받는 동

▲ 유승현: 제자훈련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형식과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자훈련은 모든 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애프터 서비스 식으로 자신이 한 번 훈련시킨 사람을 평생 팔로업해 주겠다는 희생적인 마인드가 절대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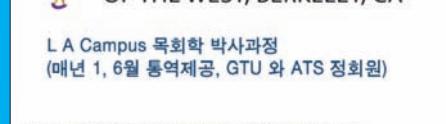
▲ 오다니엘: 그저 예배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변하기 쉽지 않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사는 일은 기도, QT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는 정말 힘들다. 평신도에게 자생능력을 길러주는 일, 그게 곧 제자 훈련이다.

김장섭 전문위원

“리더의 모범과 기도 QT 통해 큰 변화 경험”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4월18~23일 개최

2016 미주기독대학박람회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 ABIE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회원, 회생학회원(Div), 상담학회원, 선교학회원, ESL, TESOL
• 특별정부 승인 SEVIS-202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시사 기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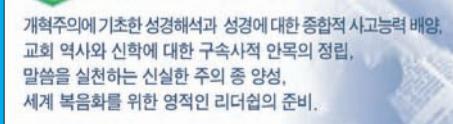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 info@aeumaster@gmail.com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충실히 사고능력 배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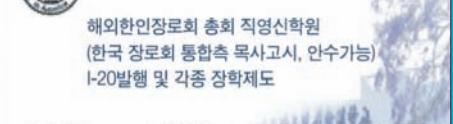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 목사고시, 인수기능)

I-20빌행 및 각종 장학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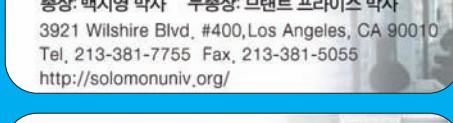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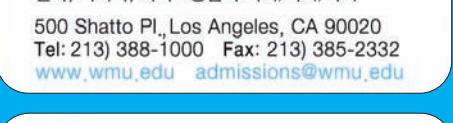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박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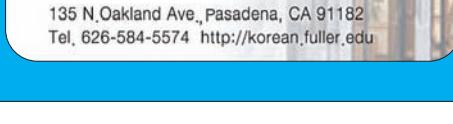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신학대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H-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E-mail: admissions@gm.edu www.gm.edu



개회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복음화된 통일조국”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심포지엄 개최…4개 세션 10개 분과 발표 진행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상임대표 이종윤 목사)이 ‘북한 인권 문제와 한국교회의 대응’ 심포지엄을 2일 서울 정동제일교회 벤델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된 심포지엄에서는 ‘탈북민 지원과 북한 변화를 위한 노력’,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의 북한 인권 의식 확산을 위한 노력’, ‘북한 인권 문제와 한국교회의 역할’, ‘각 분과 보고와 종합 토의’ 등 4개 세션을 통해 총 10개 분과의 발표가 있었다.

개회예배에서는 ‘동족을 위한 큰 근심과 고통(률 9:1-5)’을 제목으로 이종윤 목사(한국기독교학술원장)가 설교했다.

그는 “복음화된 통일조국”은 기독교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기반을 둔 자유·정의·평화통일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기여하는 조건부 복”이라며 “복음화된 통일조국은 우리의 통일이념이자,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쓰시는 나라라는 믿음과 책임의식을 갖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시 33:12), 그리고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우 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고백하고 노래하는 나라이다. ‘복음화된 통일조국’이 가져

야 할 보배 중 보배는 무엇보다 복음”이라고 역설했다.

서경석 목사(나눔과기쁨 이사장)는 1세션에서 ‘교회의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어간다는 소식이 나오기 시작한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창립하고 1년간 1백억 원에 달하는 모금을 해서 옥수수를 보냈는데, 탈북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했다.

서 목사는 “7년 넘게 북한 독기에 전념하다 결국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탈북동포 돕기 운동으로 전환했다”며 “그러나 통일을 생각한다면 지금도 굶주린 북한 동포들, 특히 어린이들을 더욱 도와야 한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도우려 애를 쓰는 모습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 체제를 강화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돋는 길로 가야 하고, 이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의무이다. 한국교회 내에 ‘직접 돕기’ 열풍이 다시 불기를 염원한다”고 전했다. 논란은 미묘한 목사(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맡았다.

이대웅 기자

“전병욱 목사 ‘공직정지 2년·강도권 2개월 정지’ 판결”

예장합동 평양노회 재판국… 부적절한 처신 인정·삼일교회는 반발



전병욱 목사(흥대새교회) 성추행 사건 판결이 공개됐다. 평양노회(노회장 김진하 목사) 재판국(국장 김경일 목사)은 전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을 명령했고, 기간 중 ‘강도권 2개월 정지’와 사과문을 교단지에 게재토록 했다.

재판국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 전병욱 목사는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B관 5층 집무실에서 전OO과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권징조례 제1장 제3조에 의거,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국은 “2010년 수면 위에 떠올랐던 이 사건은 지난 6년여 기간 동안 한국교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부흥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밝히고, “평양노회 재판국은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정당한 판결을 하기 위해 힘써 왔다”고 전했다.

다면 “전 목사의 ‘여성도 추행건’의 진상은 그간 언론에 의해 부풀려져 알려진 것과는 상당부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확인된 일부 사실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재판국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임 후 2년 내 개척금지 약속이나 ▶수도권 개척 금지 약속 ▶1억원의 성중독 치료비 지급에 대한 건 등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고 말하고, 삼일교회 한 시무장로의 양심고백과 상대측이 증거제시를 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 목사 사임 후 장로 사이에 그런 논의는 있었지만, 전 목사와 약속된 부분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2009년 문제가 처음 시작된 이후 7년 만에 나온 판결에 대해 삼일교회 측은 반발하고 있다. 교단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전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은 아무 소용 없고, 임시당회장 제체로 교회가 운영되더라도 전 목사의 담임목사직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삼일교회 측은 “대중 예상된 결과”라며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재판 상소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국 기자

“글로벌비전 ‘2016 고난주간 한 끼 금식 캠페인’ 전개”

기독교 국제구호개발기관 글로벌비전(이사장 이정익)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사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등장하는 ‘고난주간 한 끼 금식 캠페인’ 및 ‘사순절 우유저금통 캠페인’을 진행하여 제3세계 빈곤가정에 긴급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전 세계 8억 4,200만 명이 기아상태에 놓여 있고 개발도상국의 영양실조 인구비율은 14.3%에 이른다. 매년 5살 이하 어린이의 45%인 약 310만 명이 영양부족으로 사망하며, 개발도상국의 6천 6백만의 미취학 아동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학교에 간다.

본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선교 후원금은 위와 같이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제3세계 빈곤 가정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긴급식량지원 및 학교

급식비로 사용된다. 특별히 금번 한 끼 금식 캠페인이 종료된 후 참여 교회 명이 인쇄된 쌀포대에 빈곤가정 한 달 긴급식량(쌀12kg=6000원)과 고난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2016 고난주간 한 끼 금식 캠페인 – 생명을 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40일의 기적’에 참여를 신청하는 교회에는 관련 영상 자료 및 특별한 헌봉투가 제공되며, 더불어 빈곤국가 음식체험을 원하는 교회에는 즉석 쌀국수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주일 점심식사로 대용한 후, 식사비를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우유저금통 캠페인’을 통해 우유 모양의 저금통을 직접 만들고 동전을 모아 기부하여 굶주림으로 영양결핍 상태에 놓인 제3세계 아동들에게 우유를 지원할 수 있다. 문의는 (서울)02-3143-4001이다. 이나래 기자

한국교계

교회명	주소	운영시간	담당목사
LA 사랑의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2:22 주일 바침술학교 & 토요새벽 - 12/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 (818)983-9024	연제선 담임목사
LA 세계선교교회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주일예배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한천영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유아기예배 오후 1:00 한국어찬송회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요일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열린문화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3부 오후 7:00	정우성 담임목사
산타모니카찬송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주일예배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평요찬송회 오후 7:30 교회학교 종일 오후 9:00	김경렬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00 3부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열매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주일예배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평요찬송회 오후 7:30 교회학교 종일 오후 9:00	김요섭 담임목사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gka44@yahoo.com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주일예배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평요찬송회 오후 7:30 교회학교 종일 오후 9:00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선교회	gka44@yahoo.com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주일예배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평요찬송회 오후 7:30 교회학교 종일 오후 9:0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교육부 오후 11:30 새벽예배 매일	민종기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주일예배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후 6:0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김범수 치과	Bryan Kim D.M.D. General & Cosmetic Dentistry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범수 치과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범수 치과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대표 주해홍 목사

LA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후 6:30

교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 591-6500 sunhan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김성민** 담임목사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 872-2405 교회,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9:15 2부예배(화-금) 오전 11:45
3부예배 오후 11:45 수요예배(화-금) 오후 7:30
4부예배(화-금) 오후 1:45 새벽예배(화-금) 6: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은혜로운 사랑으로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밀알이 월~금 오전 6:00
오전 11시 (분성전)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4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EM새벽예배(화-금)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정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화-금)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증보기도회 오후 9:11시

권영국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9:30 중·고등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대홍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화-금)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화-금)

이종용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후 2:00

이정현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복잡하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모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아부 모전 11:00 Youth First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화-금) 5:30(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화보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org

1부예배 오전 8:30 새벽예배(화-금)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화-금) 오후 8:00
주일학교(화-금) 오후 1:00

이정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화-금) 오후 8:00
2부예배(화-금) 오후 1:00 새벽예배(화-금) 5:30(화-금)

최혁 담임목사

밸리에이브 Valley Chapel
주일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화-금) 5:30, 토 6:00
새벽예배(화-금) 5:30(화-금)

주일예배(화-금) 9:30am
주일학교(화-금) 10:30am
금요예배(화-금) 7:15pm
새벽예배(화-금) 5:30am
1951 Rinella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주일예배(화-금) 9:30am
주일학교(화-금) 10:30am
금요예배(화-금) 7:15pm
새벽예배(화-금) 5:30am
1951 Rinella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주일예배(화-금) 9:30am
주일학교(화-금) 10:30am
금요예배(화-금) 7:15pm
새벽예배(화-금) 5:30am
1951 Rinella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주일예배(화-금) 9:30am
주일학교(화-금) 10:30am
금요예배(화-금) 7:15pm
새벽예배(화-금) 5:30am
1951 Rinella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주일예배(화-금) 9:30am
주일학교(화-금) 10:30am
금요예배(화-금) 7:15pm
새벽예배(화-금) 5:30am
1951 Rinella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주일예배(화-금) 9:30am
주일학교(화-금) 10:30am
금요예배(화-금) 7:15pm
새벽예배(화-금) 5:30am
1951 Rinella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주일예배(화-금) 9:30am
주일학교(화-금) 10:30am
금요예배(화-금) 7:15pm
새벽예배(화-금) 5:30am
1951 Rinella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주일예배(화-금) 9:30am
주일학교(화-금) 10:30am
금요예배(화-금) 7:15pm
새벽예배(화-금) 5:30am
1951 Rinella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주일예배(화-금) 9:30am
주일학교(화-금) 10:30am
금요예배(화-금) 7:15pm
새벽예배(화-금) 5:30am
1951 Rinella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주일예배(화-금) 9:30am
주일학교(화-금) 10:30am
금요예배(화-금) 7:15pm
새벽예배(화-금) 5:30am
1951 Rinella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주일예배(화-금) 9:30am
주일학교(화-금) 10:30am
금요예배(화-금) 7:15pm
새벽예배(화-금) 5:30am
1951 Rinella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주일예배(화-금) 9:30am
주일학교(화-금) 10:30am
금요예배(화-금) 7:15pm
새벽예배(화-금) 5:30am
1951 Rinella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주일예배(화-금) 9:30am
주일학교(화-금) 10:30am
금요예배(화-금) 7:15pm
새벽예배(화-금) 5:30am
1951 Rinella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주일예배(화-금) 9:30am
주일학교(화-금) 10:30am
금요예배(화-금) 7:15pm
새벽예배(화-금) 5:30am
1951 Rinella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주일예배(화-금) 9:30am
주일학교(화-금) 10:30am
금요예배(화-금) 7:15pm
새벽예배(화-금) 5:30am
1951 Rinella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주일예배(화-금) 9:30am
주일학교(화-금) 10:30am
금요예배(화-금) 7:15pm
새벽예배(화-금) 5:30am
1951 Rinella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주일예배(화-금) 9:30am
주일학교(화-금) 10:30am
금요예배(화-금) 7:15pm
새벽예배(화-금) 5:30am
1951 Rinella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주일예배(화-금) 9:30am
주일학교(화-금) 10:30am
금요예배(화-금) 7:15pm
새벽예배(화-금) 5:30am
1951 Rinella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주일예배(화-금) 9:30am
주일학교(화-금) 10:30am
금요예배(화-금) 7:15pm
새벽예배(화-금) 5:30am
1951 Rinella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주일예배(화-금) 9:30am
주일학교(화-금) 10:30am
금요예배(화-금) 7:15pm
새벽예배(화-금) 5:30am
1951 Rinella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주일예배(화-금) 9:30am
주일학교(화-금) 10:30am
금요예배(화-금) 7:15pm
새벽예배(화-금) 5:30am
1951 Rinella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악명높은 신성모독법 재고해야”

파키스탄 이슬람 지도자 주장… 기독교 인권단체, 환영 의사 표명

파키스탄의 영향력 있는 무슬림 지도자가 “악명 높은 신성모독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최근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의 기독교 인권단체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슬람법의 호환성과 관련해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이슬람이데올로기위원회(Council of Islamic Ideology) 무함마드 칸 세라니(Muhammad Khan Sherani) 위원장은 “파키스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슬람이데올로기위원회에 신성모독법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성직자들 사이에 신성모독법에 대한 많은 이견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여, 현재의 법을 그대로 유지할지 혹은 강화하거나 완화할지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CLAAS(The Centre for Legal Aid, Assistance and Settlement)의 나시르 사에드(Nasir Saeed) 회장은 “이번 성명은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의미한다. 특히 신성모독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그러하다. 이 법으로 인해 처형당한 이들은 아직 없지만 고문받는 이들은 매우 흔하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무고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유명한 진보 정치인인 살만 타세르는 지난 2011년 신성모독법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인 여성을 옹호하다 자신의 경호원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록 큰 희망은 없지만,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매우 고무적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법을 논의할 의사조차 없었다”면서 “이 법안의 지속적인 오용을 그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 학교 내 이슬람 확산”

찬송가 ‘하나님’ 도 ‘알라’로… 비엔나대 연구결과 150여 학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화

오스트리아 학교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교사가 찬송가 가사의 ‘하나님’을 ‘알라’로 바꾸어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항의 학부모들이 지역 교육당국에 이 일을 알리면서 조사팀이 파견되었고 실제로 교사가 가사를 바꾸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이제 학생들 중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무슬림 어린이들이 반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가사를 바꿨다”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비엔나대학교 에드난 아슬란(Ednan Aslan) 교수는 오스트리아 정부 사회통합정책국을 위해 진행한 연구조사에서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원리주의인 살라파즘 신봉자들이 오스트리아 유치원과 학교들을 극단주의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슬란 교수는 정부와 각 지역 당국이

꺼려하면서도 내 준 승인을 통해 살라파스트들과 이집트 살라파즘 단체인 무슬림형제단 소속 극단주의자들이 학교에서 세력을 얻고 있다며, 정부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금들이 오스트리아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내 150여 개의 학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슬란 교수는 이들 학교들이 정부 교육 시책을 위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극단주의화 정책이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법을 어겨서 갈등을 빚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엄격하고 교조주의적인 이슬람 신학을 주입하고 있다. 이슬람 신학이 이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고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가르쳐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라크 최대 ‘모술댐’ 붕괴 위기”

모술 시내 20m 잠기고 50만 명 사망 예상



이라크 최대 댐인 모술댐. ©자료사진

이라크 최대 댐인 모술댐이 붕괴 위기 예 있다. 이것이 붕괴되면 모술 시내가 20m 물 아래로 잠기고, 최대 5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 정부군은 얼마 전 미군 등 연합군의 공중지원을 받아 수니파 이슬람 국가(IS)로부터 모술댐을 탈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연합군은 모술댐 붕괴 가능성을 조사했고, 션 맥팔랜드 미군 사령관은 이

라크 정부와 긴급대책을 마련 중이다.

문제는 모술댐이 연약한 지반 위에 주로 흙으로 건설되었기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댐은 1980년대 건설됐고, 2006년 美공병단은 보고서를 통해 쉽게 침식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댐”으로 지목했다. 이 댐은 티그리스강에 위치해 있으며, 중동에서 4번째로 큰 댐이다. 현재는 일부만 가동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성장”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은 커지고… 이슬람은 사회 전반에 걸친 삶의 지침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인들을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거나 개종 거부자들을 죽이는 시리아·이라크에서의 이슬람화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발행하는 선교보고서 파발마 2.0 최근호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의 종교에 참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여겼으며, 또한 엄격한 이슬람 신앙을 고수하거나 이슬람식 의상을 착용하는 것을 시대에 역행하는 것

으로 여겼다”면서 “그러나 자카르타에서 이슬람은 개인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시민들의 정치·법률·문화·경제·교육의 전반을 아우르는 삶의 지침이 되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슬람을 최고 권위로 여기는 근본주의 사상만큼은 시리아·이라크 등과 동일하다. 보고서는 또한 “비록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중동식 급진주의를 비난하고 인도네시아의 아랍화에 난색을 표하지만,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신앙이 보수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O.C./얼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김일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 11:00AM NEXTChurch
대체예배(이메일 주일 2:00PM NEXTChurch 주일 12:40AM-1:40PM
제자훈련(서울훈련 회) 주일 7:30PM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김일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예배(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전철아이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일예배 7:00pm 토요일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김병류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창성부 오전 9:30, 11:30
한국어학창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성장을 다리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521-0991 / F.(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민경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 예배 오후 2:3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일예배(기도회) 9:00pm 설기축제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pm
대학청년예배 오후 2:30

남가주 벤엘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박재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유아예배 오전 11:00 대학부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11:00)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30

민경업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흘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하귀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714) 952-0191 / www.socalfc.com

김기현 담임목사

1부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새벽 예배 오후 6:00 본당
2부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3부주일예배 오후 1:30

김일권 담임목사

주일예배(E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7:30pm 안창훈 담임목사
고등부예배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EM)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늘푸른선교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714) 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gmail.com

김기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EM주일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김일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점은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고현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금요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모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현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 새벽 협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현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College 오후 1:00

이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중등부 오후 9:15
3부예배 오전 11:30 고등부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한어부 오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권혁빈 담임목사

주일예배(1부)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화~금) 오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10:00
대학청년부 예배 오전 11:0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예배(2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11:30
목요예배(3부) 오후 7:30 토요예배(4부) 오후 8:00

얼바인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949)769-9628

박경호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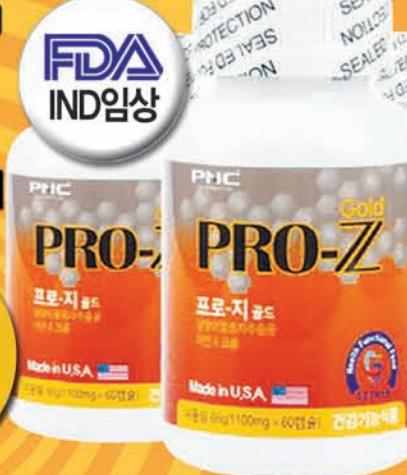
주일 예배(1부) 오전 6:30 새벽예배(2부) 오전 11:30
목요예배(3부) 오후 7:30 토요예배(4부) 오후 8:00

우대권 담임목사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이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칼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PRO-Z

한국 50만병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생생한 성지 이야기(1) 산루우르파

선지자들의 도시, 산루우르파

아브라함과 야곱 품어줬던 곳... 오늘날에는 시리아 난민들이

1. 선지자들의 도시, 산루우르파 (Sanli Urfa)

산루우르파는 '선지자들의 도시'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탄생했던 곳이자(이슬람교 주장) 오랜 시간 생활했던 곳이고, 융이 생활했던 동굴과 그의 무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2. 유적 및 성지

◆ 우르파 성채

물고기 연못 남쪽 돌산에 우르파 성채가 있습니다. 이 성채는 고대 히타이트 시대부터 있었는데, 지금 전해 오는 것은 서기 815년 재건한 것입니다. 언덕 위에 높이 17m의 돌기둥이 두 개 있는데, 이것은 기원전 3세기경 조성된 것이라고 한다. 이곳에 오르면 아브라함의 출생지와 성스러운 물고기 연못을 비롯하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 아브라함 출생지, 아브라함 동굴

산루우르파 성채의 산기슭에 큰 바위산이 있는데, 그곳에 이슬람교에서 아브라함이 탄생하고 자랐다고 믿는 동굴이 있다. 이 동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흰 사슴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한다.

동굴 안에는 이슬람교에서 '우드'라 부르는 정결의식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수도시설이 있는데, '성지'를 순례하기 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도록 유리로 보호막을 쳐 놓고 동굴 안쪽을 그 유리막을 통해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유리막 너머 동굴 안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무슬림들은 이를 성수로 여기고 있다.

이 동굴에는 이슬람화된 투르크족이 이 땅을 침략하기 오래 전부터 구전되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이 구전은 예수께서 태어난 당시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다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이야기(마 2:16-18)와 유사하다.

예전 '세상의 처음 영길'이자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던 니므로(창 10:6-9)이 자신의 바벨론 왕국을 수립한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당시, 꿈에 나타난 어떤 신인에게서 그 해에 태어나는 아이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니므로 왕은 그 해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니므로 왕의 명령 후 아브라함의 어머니인 젤리하(Zeliha)가 아브라함을 임신한 상태로 유아 살해를 피해 이 동굴로 숨어 들어왔고, 이 동굴에서 아브라함을 낳아 7살 될 때 까지 길렀다고 한다.

아브라함은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믿음의 조상, 혹은 성인으로 받아들여 모시는 인물인데, 유대교 경전과 기독교의 신구약 성경, 이슬람교의 꾸란 어느 곳에도 아브라함의 출생과 관련된 기록은 없으므로, 이 산루우르파 지역에서의 구전 내용은 매우 흥미로운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절대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구약성경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았다는 기록을 볼 때 충분히 참고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비록 소수이지만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터키의 산루우르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아브라함(이슬람교에서는 Ibrahim이라고 부른다)을 기독교,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선지자로 여기는데, 이슬람교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탄생 동굴 근처에 메블리드 할릴 이슬람 사원을 짓고 이곳을 이슬람교의 성지로 지정해 놓아서, 무

슬림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이 찾고 있다.

◆ 신성한 물고기 연못의 밸록르 골

산루우르파 중심부에는 가로 30m, 세로 150m의 밸록르 골(물고기 연못, Balikli Gol)이라 불리는 연못이, 그 바로 옆에는 할릴 라흐만 자미(Halil Rahman Camii)가 있다. 이 물고기 연못에는 잉어 같이 성인 팔뚝 만한 수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물 반 물고기 반'이 아니라 '물고기로 가득 찬' 연못처럼 보인다. 마찬가지로 이 연못에도 아브라함과 관련해 구전되는 이야기가 있다.

'아브라함 동굴'에서 자라난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달의 신(月神)인 '신(Sin)'을 믿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통신앙을 모두 버리라고 선동하고 어지럽히니, 통치자로서 니므로는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한다.

니므로 왕은 연못이 있는 이 자리에 아브라함을 잡아 끌고 와서, 장작을 높게 쌓은 형틀에 묶어 놓고 장작에 불을 붙였다고 한다. 그런데 장작더미를 휙감으며 활활 타오르던 불길이 아브라함도 휙감으려던 찰나,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며 큰 비가 내려 아브라함은 다행히 죽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내렸던 바로 그 비들이 모여 지금의 '물고기 연못'이 만들어졌고, 높이 쌓여 있던 장작들이 모두 물고기로 변하고, 그 물고기들이 번식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전해진다. 무슬림들은 이 물고기들을 매우 신성시하고 있으며, 잡아먹을



산루우르파 아브라함 동굴 입구.

경우 그 사람에게 큰 불행이 닥친다고 믿고 있다.

◆ 읍의 동굴

아브라함 동굴에서 차를 타고 10분 정도만 가면 읍이 생활했던 동굴이 있다. 동굴 위에는 돔 양식의 작은 건물이 있고, 동굴은 그 돔 양식 건물 안에 있다. 지하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면 좁은 공간이 나오는데, 읍이 피부병으로 고통당하며 지냈던 바위가 그곳이다. 그 공간은 쇠창살로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밖에서만 기도하거나 종교 의식을 행해야 한다.

읍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이자 '읍기'의 주인공이다. 동방의 의인이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가지고 저자식들과 행복하게 살다, 사탄의 시험을 받아 모든 것을 잃고 만다. 하나님께 받은 재물과 부인, 자녀들 모두를 잃고 병든 읍이, 이 동굴에 와서 생활했다고 전해진다.

읍이 생활했던 동굴 외에도, 그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팠다는 우물이 있다. 출입구 옆쪽에 수도가 있고, 그 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그 우물물이라고 한다. 이 물은 병을 치료하는 효험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 읍의 무덤과 엘리사의 무덤

또 읍의 가족들의 무덤이 몰려 있는 곳이 있는데, 이는 읍의 동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동방의 의인 읍의 소문을 듣고, 선

지자 엘리야의 제자인 선지자 엘리사가 이곳으로 읍을 찾으러 왔지만, 사탄의 방해와 계략 때문에 만나지 못하였고 결국 그곳에서 죽었다는 전승도 있다. 그래서 산루우르파에는 읍의 무덤과 가까운 거리에 '엘리사의 무덤'이 있다.

3. 마무리

이처럼 산루우르파(하란)는 하나님 말씀을 좇아 편안한 고향을 버리고 고단한 나그네의 길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에서에게 아내를 제공했으며, 에서의 추격을 피해 고단한 피난길에 올랐던 야곱이 쉼을 얻으며 아내를 만난 곳이었다.

그리고 현재 21세기에도 산루우르파는 내전과 IS의 횡포를 피해 모든 것을 잃거나 버리고 고향을 떠나온 시리아 난민들에게, 열악하지만 편안한 안식을 주고 있다. 시리아 난민들은 21세기의 나그네들이라 할 수 있다. 또 산루우르파는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다.

4천 년 전 구약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산루우르파(하란). 시리아 난민촌에 서 있으면, 예전 따뜻하고 편안한 고향 땅을 떠나 왔던 아브라함과 야곱의 애절한 숨결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곳은 현재 여행제한 구역이라 일반인들이 여행할 수 없어 안타까움은 배가되는 것 같다.

[자료제공: 레팜 난민선교회]



산루우르파 고대 성채.



연못 밸록르 골.



'읍의 동굴'로 알려진 곳.



산루우르파의 한 난민 어린이.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2. 신학 대학원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3. 일반 대학교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5) ESL 과정 – 1년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4. 훌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천 훌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천 훌스쿨링은 크리스천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의 훌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앓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훌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 월 12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 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 월 22일

겨울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12월 7일 까지 등록 마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opm Duplex	Dual Scan ADF 80 opm Simplex
----------------------------------	----------------------------------	----------------------------------	----------------------------------	----------------------------------	---------------------------------	---------------------------------

e
Emerson Drive!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Simitri

*Optional : Fax & Finisher

•이슬람 수피즘 연구(1)

‘이슬람 신비주의’로 알려진 ‘수피즘’ 이란 무엇인가

서론

정통 이슬람교가 전반적으로 율법적·의례적인 종교로서 영혼의 만족이 없는 세속적 종교 형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이슬람 신학자들이 인간의 내면적 변화를 촉구하면서 신에게 가까이 가는 방법을 연구하며 신비주의 종교로 창립한 것이 수피즘이다.

수피즘은 초기에 인간의 탐심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금욕주의적 형태를 띠고 알라에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였다. ‘수피’는 가난을 상징하는 양털 옷을 입고 금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

수피즘은 정통 이슬람과 꾸란의 가르침에 의해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알라의 초월성과 인간이 받을 길이 없는 알라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그들 주변 문화적 샤머니즘이나 범신론과 혼합된 종교이며, 꾸란과 이슬람 율법(샤리야)에 해당되지 않은 ‘알라의 내재’ 신학을 창안하였다.

그러나 수피들은 그 정통성에 대한 의심과 정죄를 피하여, 꾸란에 기록된 한 개의 구절인 “…인간의 목에 있는 혈관보다 내가 더 인간에게 가까이 있노라(Sura 50:16)”를 근거로 ‘초월적 알라’는 동시에 ‘내재적 알라’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수피즘은 앞이 안 보이는 꽉 막힌 유파주이나 사나운 무기로 성전이나 테러를 일으키는 원리주의도 아닌, 위와 같이 자기 부정과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온건한 이슬람’이라는 이미지를 세상에 보이면서,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는 이를 장려하게 되었다.

현대 수피즘 내지 이슬람 신비주의는 전 세계 무슬림 인구의 70%를, 수피 종단들의 회원 수는 세계 이슬람의 1/3 내지 1/2를 차지한다.

이슬람이 수피즘을 통해 온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을 알게 된 이집트의 정부와 알아자르대학교 학자들은, 능력 있는 이슬람 포교사를 배출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수피학 학교’들과 수피즘 학술센터들을 세웠다.

모로코는 수피즘에 뿌리를 둔 나라다. 2010년 모로코 정부가

재정적으로 크게 지원하여 수피 운동을 확산시키고 극단주의와 싸우게 하여, 이곳에서는 수피즘에 의해 극단주의가 물러났다.

세네갈에서는 애니미즘과 혼합된 수피즘이 정통 이슬람 세력 보다 강하고, 모스크의 이맘보다 수피의 마라부트가 더 큰 권한을 행사한다. 세네갈 수피 아마두 밤바가 창설한 무리디야 종단은 세네갈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세네갈의 가장 강력한 정치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 종단은 세네갈의 두 번째 도시인 투바에 근거지 및 모스크와 종교 학교를 세우고, 농장을 잘 경영하여 부를 획득하였다. 국가는 이곳을 통제하지 못하고 무리디야 종단과 상의하고 권력을 분배한다.

세계 이슬람은 2020년까지 한 국을 샤리아가 다스리는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는 계획 아래, 지난해 6~7월 라마단 기간 동안 세계 무슬림들이 모두 한국의 이슬람화를 위해 등에 태극기를 수놓은 옷을 입고 기도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2000년 6월 13일에는 주한 이스탄불문화원이 주최한 터키 수피즘 메블라나 종단의 세마춤 공연이 펼쳐졌다. 세계 무슬림들이 메블라나 수피들의 공연을 이슬람의 문화 선교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메블라나 종단 창시자 메블라나 카밀루딘 루미의 저서들은 현재 서구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유네스코는 루미의 출생 800주년을 기념해 2007년을 ‘루미의 해’로 정했다.

세계가 이슬람 수피즘의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필자는 아직 수피즘에 대해 잘 모르는 한국 교회에 비록 제한된 지식으로나마 그 실체를 소개하며, 수피들의 신학과 신비 체험을 간단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1. 수피들의 신학

‘알라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수피들의 신학은 종파에 따라 샤머니즘 문화와 혼합된 형태와 아시아의 범신론적 고등종교 철학과 병행된 형태로, 더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신앙적 목표인 ‘알



이동주 박사
선교신학연구소 소장

라와의 합일’의 신비를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유신론적인 합일신학’과 ‘범신론적인 합일신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1.1. 유신론적인 합일신학

이집트엔 1,100~1,500만 명의 수피들이 있는데, 수피 종단 창단자들(쉐이크들)을 숭배한다. 그들의 묘는 모스크 안에 있고, 수피들은 이들의 묘에 손을 대면 그 복이 자신들에게 온다고 믿는다.

이들의 묘소는 기도, 질병치유, 복, 물질적 도움을 구하는 순례지다. 카이로에는 후세인의 누이인 사이다 자이납의 묘가 있는 모스크가 있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 동네 여인들이 복을 받으려고 그 묘에 가서 줄을 서 있다고 한다.

명지대 교수 조희선은 이슬람 수피들의 ‘사자(死者) 숭배’ 내지 ‘성인 숭배’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자힐리아 시대에 있던 성인 숭배가 Sura 10:62에 전수되었다고 보았다: “실로 하나님의 왈리들은 두려움도 슬픔도 없느니라.” 조희선은 “왈리”를 보호자, 복 주는 자,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풀이한다.

시아파는 ‘마지막 예언자’가 죽은 후에 창조자와 인간 사이의 심연을 메워 줄 중개인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알라의 후손이 결함이 없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그들에게 이맘의 자리를 계승시켰다. 이렇게 시아파에 의해 알리와 그 후손들과 이맘들이, 수피즘에 의해 수피 종단 창단자들이 숭배를 받게 되니, 이에 대해 정통파인 수니 무슬림들은 무함마드에게도 그러한 특성을 부여하고 싶었던 것이다. 수니파를 중심으로 한 정통파에서는 무함마드 숭배를 거

절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던 것이다.

정통 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성자’나 ‘왈리’보다 앞선다는 것을 지키기에 급급하여, 메디나 무함마드의 묘소에서의 사자 숭배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함마드 출생과 사망일에 무함마드 숭배를 합의(ijma)에 의해 인정하였다.

이븐 타이미야(1328)는 “예언자의 모스크에서 올린 한 번의 예배가 다른 곳에서 행한 1,000 번의 예배보다 나으니라”고 하고, “예언자에게 인사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무슬림들은 이와같이 어떤 거리낌도 없이 무함마드와 토착 성인들과 왈리들과 이맘들을 숭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무함마드는 수니파에서 숭배를 받게 되고, 무함마드 숭배는 수피즘에 의해서 가중되었다.

수피즘은 무함마드를 최고의 존재로 여긴다. 그러나 더욱 심한 것은, 무함마드와 하나되는 것이 19세기 시누이 종단의 종교적 목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시아파 중 Alevi파는 무함마드보다 알리를 더 우월하다고 믿는다.

‘유신론적 합일신학’은 알리를 무함마드와 동일시하거나 알라의 유출이라 주장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마흐디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파키스탄의 마흐디 운동은, 이슬람에 한 약속된 메시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흐디(mahdi)’라는 것이다. 파키스탄에서 나타난 마흐디란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메시야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한 선생을 말한다.

그 첫 마흐디가 인도 태생의 하즈라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Hazrat Mirza Ghulam Ahmad 1835-1908)이다. 그는 편집 지방에서 신적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자칭 마흐디라고 하였다. 그 추종자들은 그를 무함마드의 형상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알라의 계시가 무함마드 이후에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 것을 주장하면서, 무함마드를 ‘마지막 유파 계시자’로, 그리고 그 자신을 그 유파를 오염에서 정화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선지자’로 칭하였다.

그는 꾸란을 일점일획도 달라 질 수 없는 불변의 진리라고 믿고, 이 땅 위에 오직 하나의 세계 종교인 이슬람만이 존재하는 유토피아를 이를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뒤를 이은 하즈라 알-하즈 마우비 두르-웃-딘(Harzat Al-Haj Mauvi Dur-ud-Din 1914)은 자신을 첫 번째 칼리프라 하였고, 그 뒤를 이은 칼리프들에 의해 마흐디 종단 이슬람은 학교와 병원 선교를 통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꾸란은 100개의 언어로 그 의미가 번역되었다.

이 밖에 Babismus라는 마흐디 운동가인 페르사인 미즈라 알리 마함메스(Mirza Ali Mahammes, 1821-1850)는, 자신이 문(ba:b) 이자 ‘하나님의 숨의 거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Mahdi와 선지자의 영이 임했다고 주장하였다.

또 Behaismus 창설자인 테헤란 출신의 미즈라 후세인 알리 누리(Mirza Hussein Ali Nuri, 1817-1892)는 자신을 알라의 유출 내지 광채(Beha Allah)라고 하고, 모든 종교들이 희망하던 마흐디들(재림 그리스도, 크리슈나, 이맘 후세인의 출현)의 성취라고 주장하였다. 이 마흐디 운동들은 근본 꾸란이 무함마드 자신을 아흐마드, 즉 “찬양받을 자”의 위치에 올려 놓은 데서 시작되었다. Sura 61:6은 예수가 무함마드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는 구절이며 다음과 같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너희에게 보내어진 선지자로서 내 앞에 온 구약과 내 후에 올 아흐마드이란 이름을 가진 한 선지자의 복음을 확증하노라.”

마흐디 무슬림 공동체의 제4대 칼리파인 Hazrat Mirza Tahir Ahmed에 의해 출판된 「Der Heilige Qur-an」에는 위의 절 “아흐마드”에 관한 각주가 있다. 그 내용은 아흐마드가 성경의 보혜사(Paraklet)와 동일하고, 그것은 무함마드가 온다는 뜻이라고 한다. Su:ra 7:157의 각주 157-1에는 신 18:15의 ‘나와 같은 선지자’와, 요 14:16의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무함마드라는 것이다. <계속>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C
1장

복사기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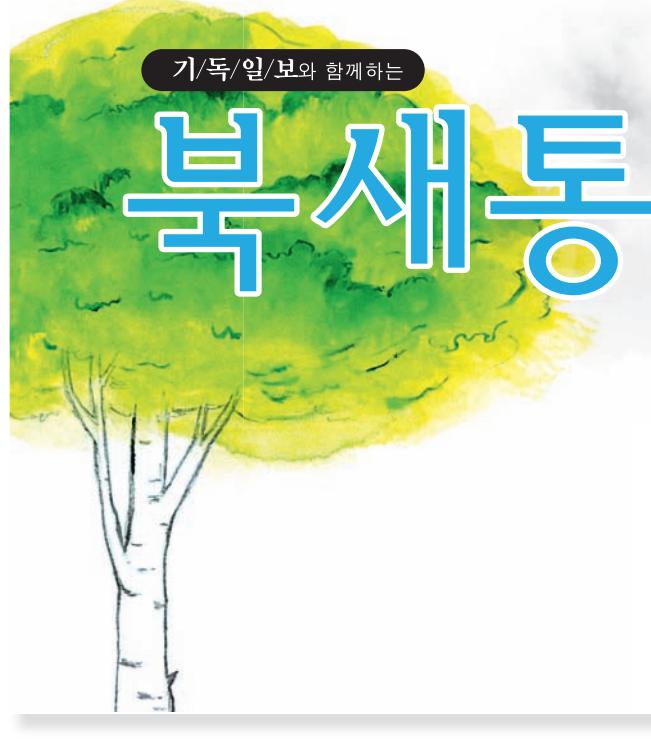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ip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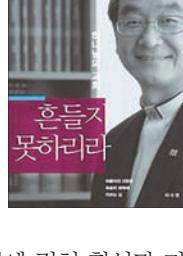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하나님의 교회: 흔들지 못하리라

이수영 | 생명의말씀사 | 304쪽



함께 출간된 <하나님의 교회: 다시 숨쉬게 하라>와 함께 이수영 목사의 은퇴를 기념하여 폐낸 설교 선집이다. 저자가 지난 15년간 한국의 '어머니 교회'를 담임하

면서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확신과 기쁨으로 전한 메시지를 중 염선했다. 본문에 충실히 설교를 최우선하고, 본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조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라는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

JUM 성경읽기표와 함께하는 일독큐티

문정웅 | 비전북 | 208쪽

1~3월까지, 창세기부터 사무엘까지 통독하면서 큐티할 수 있다. 말씀 순서대로 교회의 모든 새벽예배와 주일예배, 성경공부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구

성했다. 12월 31일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마무리된다. 저자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기에, 말씀을 읽고 믿음에 선 성도가 신앙을 지키고 교회와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영혼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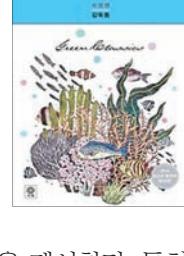
스테니슬라우스 케네디 | 얼림원 | 388쪽

1958년 아일랜드 가톨릭 자선수녀회에 입회한 이래 50여 년간 여러 사회 활동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돋고 있는 저자의 일기와 잡언들을 묵

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일을 할 적엔 기도하는 마음을 들고 가고, 한참 활동하다가 다시 고요한 기도로 돌아오곤 한다는 저자는 활동가로서와 고요한 수도자로서의 모습이 조화를 이룬다. 이해인 수녀와 조카 이진이 공동으로 번역했다.

녹색 고전: 서양편

김욱동 | 비체 | 348쪽



고전문학이 말하는 '자연 친화적 삶'을 통해 생태의식 개선을 추구한다. 다양한 고전에 담긴 선조들의 '생태적 삶'을 재조명,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학 읽기' 방법론을 제시한다. 특히 서양의 여러 환경운동가들은 구약성서에 담긴 태초의 자연 모습과 탈무드에 깃든 소비자본주의 비판에서 영감을 얻었다. 번역가이자 저술가인 저자는 '녹색 고전' 동양편과 한국편을 함께 펴냈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위기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정인수 목사 30년 목회 현장에서 발로 뛰어 얻은 위기 극복 솔루션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 담임 정인수 목사의 신간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 빛난다(두란노)>가 출간됐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닥친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당황스럽고 고통스럽다. 어떻게든 빠져 나오려 발버둥치게 된다.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교회에서 목회자로, 리더로 사역하다 보면 숱한 위기를 만난다. 대부분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른 데서 오는 갈등이 많다. 그들과 협력하여 사역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30년 목회 중 숱한 위

기를 극복한 정인수 목사가, 멘토의 마음으로 들려 주는 '위기 극복 솔루션'이다. 정인수 목사는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의 담임으로, 분열·정체되어 있던 교회를 성장·발전시켰다. 저자가 목회를 통해 체험한 리더십 극복의 사례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영적 리더는 위기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기는 리더를 성장시키고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기회다. 이 위기를 성경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이끄심에 맡겨야 한다. 자기의 지대로 풀려고 하면 실패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극복



진정한 리더십은...
정인수
두란노 | 240쪽

할 수 있다. 이 책은 목회자와 신학생은 물론 교회의 리더들에게 유익하다.

정인수 목사는 “오늘날의 가장

큰 위기는 종체적 방향 상실에 있다. 여기에 모든 위기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풍랑 가운데 나침반도 없이 표류하는 형국인데, 더 심각한 것은 나침반이 있어도 도달할 목표 지점이 없다는 것이다.

여설적이지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다. 오늘 우리가 봉착한 위기의 해법은 성경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위기가 왔을 때 믿음과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리더십으로 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 목사는 “그동안 목회를 통해 체험한 리더십 극복의 사례들을 이 책에 담아 보고자 했다. 그리고 신학의 위기, 교회의 위기, 정

체성의 위기, 현대 사회의 위기 등을 성경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추천의 글에서 김삼환 원로목사(명성교회)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감당해 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회를 물려 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는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가슴에서 나오는 정 목사님의 목소리에 한국교회와 사회가 귀 기울일 때,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고 사회는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수영 기자

헤어칼라 전문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マイスタイル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매직스트레이트
\$10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 up

프로페셔널 웨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웨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PROFESSIONAL
WELLA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8:00 PM



“성장과 성숙 사이의 통곡 담은 ‘액션플랜’”

다시 오류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든 ‘사역의 로드맵’

신간 ‘액션플랜’의 저자 김병삼 목사(만나교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에 달렸다”며 “이 책은 ‘신앙 여정을 위한 지침서’로, 설교 주제에 맞추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그에 맞는 봉사·사역의 장을 소개받아 신앙의 성장과 삶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성장’과 ‘성숙’ 사이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고민하다 이 책을 엮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담임목사가 된 후 11년 동안 열심히 목회한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로 외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성장’을 이루었지만, 성도 수가 늘어나는 만큼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보았다”며 “목회에 실패했다는 생각에 처절한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다”며 “이제는 때가 오래되어 마땅히 선생이 되어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초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심정이 이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었겠구나 싶었다”며 “다시 사역의 ‘로드맵’을 그려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액션 플랜
김병삼
두란노 | 268쪽

김 목사는 2010년부터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목표를 세워 설교하기 시작했고, 2010년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주제로 시작해 2011년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2012년에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더 좋은 성품’에 대하여 설교했다.

그는 “그리고 나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시작되었다”며 “그래서 2013년에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복음과 제

자도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고, 2014년에는 자연스럽게 ‘복음의 급진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2014년 한 해는 ‘메디컬’이라는 주제를 다루었고, 2015년은 급진적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액션 플랜’으로 로드맵을 그렸다. 그 후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12가지 키워드를 뽑아 성도가 이에 대해 새롭게 배우고 익혀 결단하게 했다.

12가지 키워드란 ‘복상, MMP(이웃 교회 살리기), 나눔, 선교, 예배, 소그룹, 기도, 동역, 자녀, 가정, 배움, 다음 세대’ 등이다. 그는 이 12가지 주제를 매주 하나씩 성도에게 풀어놓았다. 성도는 한 가지 주제가 끝날 때마다 ‘Action Passport’라는 결단서가 담긴 수첩에 서명을 함으로써 실천하고 변화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했다.

저자는 “이 책은 다시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든, 사역의 로드맵”이라며 “매년 우리 교회 성도가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같은 고민을 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책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 신앙의 여정에 함께 발자국을 찍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은애 기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기도의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의 추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기도의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좋은 기도의 출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리는 서곡이다.” - 본문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의 악세서리도 마법의 주문도 아니다!”

“함부로 의미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이 익숙한 문구는 영화의 “클로징 크레딧”처럼 기도가 끝났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문구를 덧붙였다고 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로 기도를 마친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 놓



예수님의 이름으로...
브라이언 채플
생명의말씀사 | 288쪽

고 아무런 생각 없이 서둘러 기도에 서명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치 기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주문 같은 것일까? 저자는 이 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는 의

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란 말은 마법의 주문이나 단순히 기도에 서명하는 행위가 아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의 나라에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내 뜻대로 마음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또 간절한 기대감을 품고 대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실제로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기도 내용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기도생활을 새롭게 혁신하기를 원한다면 이 책에 귀를 기울여라. 이영인 기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시간



성경을 쓰다
고진하
지혜의샘 | 222쪽

『기도 필사』는 아우구스티누스에서 헨리 나우웬까지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문을 읽고 읊겨 적으며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필사책이다.

원편에 있는 기도문을 읽으며 오른편의 빈 공간에 읊겨 적도록 했다. 쓰기 싫다면 그냥 비워 두어도 좋다. 아니면 기도문을 읽고 감동된 마음을 기록하거나 나의 기도를 적어도 좋겠다. 그 순간 떠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것은 어떨까? 기도를 필사하며 누렸던 은총은 후에 다시 읽어도 고스란히 살아날 것이다.

신앙의 선배들이 앞서 걸은 기도의 오솔길로 따라 나서다 보면, 우리의 일상은 기도하는 순간으로 채워질 것이다. “하루를 시작하며”(존 뉴스), “성경을 읽을 때마다”(오리게네스), “광고를 보면”(마셀 케이스트), “신문을 읽다가”(마이클 헐링스), “요동치는 하루를 마치고”(엘레트 카마라) 드리는 기도를 통해 매 순간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기도는 본능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고독 속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 절벽 앞에 선 듯 막막한 삶 속에서 토해내는 한숨,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경험하는 심장의 떨림, 이 모두가 기도라고 한다. 모름지기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

재와 접속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예술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문을 읽고 번역하면서 행복했노라고 고백한다.

“나는 몇 달 동안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문을 읽고 번역하면서 행복했다. 하나님의 숭고에 달아 온몸으로 전율한 인간의 성스럽고 내밀한 체험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프롤로그 중에서”

나는 몇 달 동안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문을 읽고 번역하면서 행복했다. 하나님의 숭고에 달아 온 몸으로 전율한 인간의 성스럽고 내밀한 체험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해 시대의 순교자들, 광야로 나가 고독과 고통을 겪 디며 하나님과 사귄 수도자들, 시대의 모순과 갈등에 고로워하며 변혁을 추구한 종교개혁자들, 저 밑바닥 저자거리로 나아가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성직자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거듭 난 삶을 추구했던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용사들의 대답하고 정직한 고백의 문장을 읽으면 나 역시 깨어지고, 부서지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문을 읽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의 기도문 속에 깃든 고통과 눈물과 탄식, 그리고 거듭 남의 환희와 합일의 황홀은 내 마음에도 천동처럼 큰 울림으로 메아리쳤다. 우리가 기도문을 베끼는 것은 기도의 테크닉을 배우고자 함이 아니다. 기도는 테크닉이 아니다. 기도는 삶이요, 고백이며 배움이다.” - 프롤로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행복을 맛볼 차례다. 깨어지고, 부서지며,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선배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게 되는 행복을 말이다.

기도를 필사하며 듣도록 QR코드로 음악을 연결했다. 저자의 육성으로 듣는 기도문도 또 다른 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쓰기 편하도록 PUR 제본으로 만든 것도 독자를 위한 배려라 할 것이다.

이영인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대리점 모집

젊게 하는 세제 "에미나"

우리 가정에서 생활세재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를 친환경, 무공해, 항산화 효소세제인 “에미나”가 이제 대신합니다.

일본에서 토양 속의 이로운 균을 이용하여 효소로 제조된 “에미나”는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생활 용품, 세차, 어항, 낚세제거,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 관리, 화초, 텁텁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무공해 친환경 세제입니다.

“에미나”는 세제구입 비용과 물을 절약 할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세제입니다.



식당 화장실 냄새제거 특효

“에미나” 스프레이 하시면 어떤 냄새든지 쉽게 없어집니다.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지독한 식당의 화장실 냄새가 없어지지 않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가정 필수 제품: 밥솥】

밥 짓을 때 밥솥에 두면 밥맛이 좋아지고,
24시간 후에도 밥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필수 제품: 생생 팩】

생생 비닐팩에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면

20일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사용 효과

▣ 세탁: 작은 량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가 없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줍니다.(아토피, 피부병, 상처 등)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시면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오 먼지가 잘 불지 않습니다.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궁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에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얀 피부가 좋아지고, 철학순원이 잘됩니다.

▣ 집안: (가구, 이불, 커튼 등), 차, 사무실에 뿐만 아니라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곰팡이, 화학물질, 감마 방사선, 절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뿐만 아니라 냄새가 없어집니다.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궁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쉽고 간편하게 도움을 줍니다. 어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가루를 땅에 뿐만 아니라 세탁, 설거지, 화장실, 화분에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질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추 작물을 사람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 키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과일, 야채 씻을 때 사용하시면 냄새를 분해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신선함이 오래가고, 꽃에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양치질 할 때 극소량을 치약에 넣어 사용을 하면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고, 먹지는 마십시오.

▣ 차의 에어컨 필터에 뿐만 아니라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냉장고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곰팡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3~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그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집안 청소 시(냄새, 모기, 파리 제거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뿐만 아니라 주시면 됩니다.

▣ 작품에 뿐만 아니라 (스프레이) 시 1/5,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은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일 정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 하시면 식물이 마를 수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Yirrh Healthy Living Co. 이레 건강

833 S. Western Ave. #15 L.A, CA 90005(로데오 젤리리아)

Tel:323)316-6815

Korean Americans Seek to Inspire and Represent

BY RACHAEL LEE

Korean American professionals working in various fields gathered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on Saturday for the Korean American Coalition (KAC)'s National Convention. For the first time, KAC collaborated with USC's Korean American Student Association (KSA) to host its convention.

Accordingly, the convention's seminars and topics were geared more towards a younger audience, according to Steve Kang, the current KAC-LA deputy director. The convention, themed, "Building Communities," focused on numerous Korean Americans' trajectories in various career fields, and featured accomplished Korean Americans in fields such as politics, entrepreneurship, law, finance, and entertainment.

Assemblywoman Young Kim of the 65th District and Los Angeles City Councilmember David Ryu were featured as the keynote speakers during lunch, and La Palma City Councilmember Peter Kim was featured as one of the panelists of a session focusing on political activism.

Other speakers throughout the convention included Los Angeles County Supervisor Michael Antonovich; Michael Sohn, a supervisory special agent of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Young Cha, CEO and founder of OnDemandKorea; Ted and Yong Kim, founders of Seoul Sausage Company; Jun Oh, the senior vice president of business affairs at Warner Bros. Pictures; and Hank Kim, commander in the U.S. Navy specializing in surface warfare, among others.

'The Church Without Walls'

Serving and Worshipping in L.A. Streets

BY SHELBY MOON

Located in the heart of downtown Los Angeles where many homeless individuals live is The Church Without Walls -- a church with literally no walls, accessible to anyone who would like to visit.

As a church not within a building but one that simply meets on the street, one could have a firsthand experience and encounter of Christ's love simply as they walk along.

The church was planted by an African American pastor by the



David Ryu was one of the keynote speakers during lunch at KAC's national convention which took place on Saturday.

Many of the speakers shared stories of how they arrived at their current position to the some 100 people -- mostly students -- at the convention.

"There's so many people who say, 'It's not for me,' or 'It's too hard,' and just quit," said Michael Sohn. "Name every test -- I failed it. But I kept trying and that's why I'm here."

"There is no such thing as a small job," Councilmember David Ryu said. "You've got to work hard at every thing you do." He added that many of the opportunities that he was able to have was due to his seeking out various people in his life for help.

Assemblywoman Young Kim said that she herself stands as an example that "as a female," and as a part of a minority ethnic group, "You can have the career of your dreams, and have kids, and make

a difference."

"You need to work on one person, one community at a time," Kim added.

Some speakers discussed the degree to which Korean American culture and interests have been garnering more awareness in the mainstream. In the political realm, Gene Kim, the senior consultant for Imprenta Communications, explained that there has been much progress in terms of getting more representation of Korean Americans through elected Korean American officials, but there is still room for "much more progress," he said, in terms of pushing for the interests of Korean Americans.

"It's a sign of progress that these Korean Americans are getting elected, but once elected, my hope is that they wouldn't just be present, but leading and fighting for the interests not only of Korean

Americans but all Americans," Kim said.

"Guys like us, we're few in number," said Ted and Yong Kim of Seoul Sausage as they encouraged those who were present to support Korean American products. "We've only scratched the surface of what could be done."

Meanwhile, KAC currently has eight branches throughout the nation, including in Atlanta, Dallas, Chicago, San Diego, Portland, Seattle, and Orange County. Last year in particular, the Portland chapter hosted the first ever Korean food festival in the city, and Seattle held legislative panels to increase recognition and awareness of the Korean American population.

Most chapters have continuously held voter registration drives, one of the key activities by which KAC was founded.

Reunion of Families Divided by Korean War Urged by Activists

BY RACHAEL LEE

"This old grandma has a dream too. My dream is to step on the grounds of my hometown one more time. When Korea is unified once again, I really want to go back to my hometown."

Such were the words shared by Hee-Bok Kim, an elderly woman in her nineties whose family was divided during the Korean War. Kim was one of six panelists at a session about divided Korean families during the Korean American Coalition (KAC)'s recent national convention which took place on Saturday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Kim's hometown is Pyongyang, but moved to Seoul after she got married, when "all of a sudden, the war broke out on June 25," she said. All of her family remained in North Korea.

In 1988, Kim moved to the U.S. with hopes to see her family again, after hearing that it was easier to visit the North with a visa from America. And after three years of processing documents, she visited the North in 1991.

"When I finally got there, I found out that all of my family, my parents, my siblings, had all passed away," she recalled. "I just wept there, and came back."

Though dwindling in number, individuals like Hee-Bok Kim are still alive today and many await to reunite with their families, said the panelists during the session.

The panelists urged the 100-some members of the audience to engage with their respective Congressmen and th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o encourage them to pass House Concurrent Resolution 40 (HRC40), a resolution authored by Congressmen Charles Rangel and Ed Royce to actively encourage North Korea to allow reunions of divided Korean American families due to the Korean War, and to call on North Korea "to take concrete steps to build goodwill that is conducive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solution text notes that "the number of more than 100,000 estimated divided family members in the United States last identified in 2001 has been significantly dwindling as many of them have passed away," and adds that "many Korean Americans are waiting for a chance to meet their relatives in North Korea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60 years."

"Together, we can make a change. This is the dying wish for many people," implored Jeane Noh of the Divided Families USA team. "There are still people alive, and this could be a reality for them if we act quickly."

Noh said that increasing numbers on the organization's listserv, as well as registering more members of the community who are separated from their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will help to increase legitimacy in pushing for legislation in favor of reuniting divided families.

A similar concurrent resolution was introduced in the House in March of 2014 (HR91), but no action was taken after April of 2014. HR 40 was introduced in April of 2015 and has 65 co-sponsors.

Living Way Community Church Celebrates 16 Years

BY RACHAEL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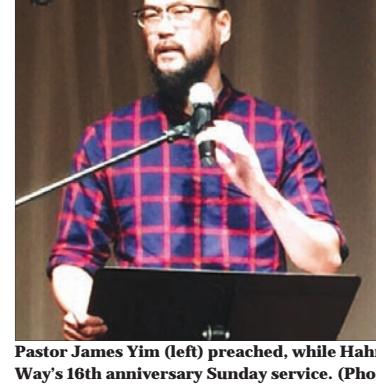
Living Way Community Church, located in Los Angeles, celebrated its 16th anniversary on Sunday with a special worship service.

Living Way began in January of 2000 with just 20 people in the home of Pastor James Yim, who planted the church and currently serves as the co-lead pastor. Today, the church has grown to consist of some 260 members on an average Sunday, with various ministry opportunities and active outreach and missions programs.

"I think I say this every anniversary, but we made it through another year, not because of us, but in spite of us," Yim said. "Because we serve and worship a great and awesome God who is faithful and merciful and gracious."

Hahri Shin, who has been attending Living Way for about a year and a half, became a Christian through the church, and shared through a testimony during the service the ways in which the Living Way community has allowed him to grow.

A Philadelphia native, Shin moved to Los Angeles in 2014 and wouldn't have identified himself as



Pastor James Yim (left) preached, while Hahri Shin (right) shared his testimony during Living Way's 16th anniversary Sunday service. (Photos courtesy of Living Way Community Church)



Pastor James Yim (left) preached, while Hahri Shin (right) shared his testimony during Living Way's 16th anniversary Sunday service. (Photos courtesy of Living Way Community Church)

being religious at the time. Though Shin's family was religious, he shared that he felt religion was more about how one is perceived by others or how to carry oneself.

As a result, Shin said, he found it easy to distance himself from God, and eventually found himself tangled in issues such as alcoholism, drug use, and depression.

"I was pretending to be someone I wasn't because I wanted [people's] love and approval," Shin said.

"I would do anything and everything to fill a void in my heart, which I thought could be filled with earthly desires."

"It only took one visit to Living Way for the word of God to grab a hold of my heart," Shin said. "Where there was an emptiness in my heart, it's now overflowing with God's love."

Indeed, Yim affirmed during his sermon that Christ's blood removed the sins of all people, and gives access to the most holy God.

As he preached from Hebrews 10, he also emphasized that a community of believers are called to a certain dynamic of community, different from that of the world, as he focused on verses 24 and 25: "And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on toward love and good deeds.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 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Christ's work on the cross doesn't only radically transform our relationship with God -- Christ's work on the cross radically transforms our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Yim said.

The author of Hebrews encourages Christians to continue to meet together, "because you can't stir someone to love and good deeds in absentia," Yim said.

Not only must believers continue to meet together in community, but they must "seek God for ways to encourage each other" -- it is a responsibility for all Christians according to the text, Yim said.

"Your attendance here, no matter how frequent, does not make you a part of this body -- and I say that lovingly," he continued. "Church is not a gathering of Christians to sit and listen to preaching. Church is a gathering of men and women who have made a covenant with each other, in light of their covenant with Christ, to do life together. That's the church."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PASTOR RONNIE PARK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l.org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72개월까지
0%이자 가능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소비자 만족도 서부지역 1위! •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 • 미국에서 에쿠스를 가장 많이 파는 딜러!

PRESIDENTS DAY SALE

NEW
**2016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Tax}

All In Stock With
MSRP \$19,3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3,000 Lease Cash,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JUST ARRIVED

Get Better Deal On
2016 Hyundai
Find Out Why!!

NEW
**2015 HYUNDAI
SONATA LIMITED**
With Ultimate
Technology Pkg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Panoramic Sunroof, Navigation System W. 8" Touch Screen
Integrated Memory System For Driver Seat & Side Mirror & More!!

Lease It For
\$88^{+Tax}

All In Stock With
MSRP \$32,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500 Lease Loyalty Cash,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A PERFORMANCE VEHICLE WRAPPED IN LUXURY"

NEW
**2016 HYUNDAI
EQUUS SIGNATURE**
Lease It For
\$399^{+Tax}

All In Stock With
MSRP \$62,45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8,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5 HYUNDAI
GENESIS SEDAN 5.0L V8 Engine**

Lease It For
\$299^{+Tax}

All In Stock With
MSRP \$52,7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4,25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It's an honor to be nominated 2015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Finalist"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